



2022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022 세계기자대회

#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4(Sun) - 26(Tue) April 2022

Conference Book I

Current Status of Fact-Checking by Global Journalism  
and the Operation of Media Self-regulatory Organization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

Conference Book I



2022 세계기자대회

#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4(Sun) - 26(Tue) April 2022



2022 세계기자대회

## Contents

---

개요	143
컨퍼런스 I	155
참가자 리스트	265



※ 세계기자대회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으로 시행됩니다.

## 개요



행사명	2022 세계기자대회
일시	2022년 4월 24일(일) - 26일(화)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주최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후원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주제	▷ 콘퍼런스 I :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 ▷ 콘퍼런스 II : 언론이 변화시킨 사회
사업목적	<p><b>1. 각국의 허위정보 검증 실태와 정책 점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언론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은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하였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을 가중시킴.</li> <li>- 나아가 허위 정보는 언론의 신뢰를 급격하게 추락시킴으로써 언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특히 감시와 견제는 물론 약자들을 대변하는 고유의 순기능도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li> <li>- 이를 계기로 각국의 허위 정보 퇴출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언론 신뢰 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과 언론계 자성 노력을 듣기 위함.</li> </ul> <p><b>2. 언론이 바꾼 사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언론의 역할임.</li> <li>- 한 줄의 기사, 한 컷의 사진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음.</li> <li>-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특정 언론 보도가 사회를 변화시켰던 우수한 보도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의 내용을 공유, 상호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li> <li>- 우수 사례 중 참가국 기자가 활용 가능한 기사 아이템을 발굴하여 각국 정책을 유도함.</li> <li>-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의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도 함께 논의.</li> </ul>

날짜	시간	주요 일정		
4.24 (일)	14:00 -	최종 리허설 및 사전회의		
4.25 (월)	사회 : 정민호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장, 코리아타임스)			
	14:00 - 14:10	개회	개회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축사	김부겸 국무총리
			축사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대한민국 소개 동영상 시청	
	14:10 - 17:00	컨퍼런스 I	각국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 운영 현황	
			발표1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발표2	안형준 MBC 기자
			발표3	해외기자
	17:10 - 18:00	집단토론 I		
4.26 (화)	사회 : 정민호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장, 코리아타임스)			
	13:30 - 14:30	특강	블록체인 기반의 뉴스 생태계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	
	14:40 - 17:00	컨퍼런스 II	언론이 변화시킨 사회	
			발표1	이민규 중앙대학교 교수
			발표2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
			발표3	해외기자
	17:10 - 18:00	집단토론 II		

개회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길

안녕하세요.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2022년 세계기자대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각국 기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년 남짓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창립되어 올해로 5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자 단체로 전국 199개 언론사 1만 1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5대 강령중 하나인 <국제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1966년 국제기자연맹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 기자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 세계 언론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세계기자대회가 어느덧 올해로 10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첫 행사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전 세계 언론인들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로 초청해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의 미래를 논하고 상호 친목의 장을 확장시키며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언론인들의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개회사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불가피하게 3년째 온라인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분단 현실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각국의 상황과 고민을 공유하고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성별, 피부색, 이념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진실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 온라인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자대회는 첫날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언론 불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정보’의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들여보고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서로 도입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날에는 각국의 우수한 언론 보도 사례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되짚어보기 위한 취지로 ‘언론이 변화시킨 사회’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토론자들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참가자들께서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비록 온라인상으로나마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조언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시는 만큼 참가자들 모두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올해의 컨퍼런스 내용을 동료 기자들과 공유해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여러분 모두를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김부겸

대한민국 국무총리

문명의 대전환기, 언론의 역할

존경하는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가 올해로 열 번째를 맞았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해마다 우리 인류가 당면한 주제를 놓고 전 세계의 기자들이 참여해서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세계 각국의 방역 체계와 경험을 공유하며,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세계기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귀한 자리를 준비해주신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발표와 특강을 해주시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정은령 센터장님, ‘퍼블리시’ 권성민 대표님, 중앙대학교의 이민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인 여러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인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 이제 차분히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물겨운 협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과 가장 낮은 치명률을 보이며 이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가져온 상처는 실로 큼니다. 국가 간, 계층 간 갈등과 불평등은 더욱 깊어

축사

졌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언론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백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나 자극적인 내용들을 온라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앞다투어 보도하고, 혼란을 부추겨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과연 무엇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인지 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기에 닥쳐올 여러 도전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언론이 바로 서서 길을 밝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앞으로 닥칠 가장 큰 도전 요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에서 올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공동체야말로 이 전환기에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 힘으로 언론과 우리 인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제10회 세계기자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내년 봄에는 세계 각국의 기자님들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봄을 직접 만나보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전 세계 언론인들의 흥겨운 축제가 되길

안녕하세요.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입니다. 2013년에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세계기자대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기자대회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언론인들이 모여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올해의 세계기자대회가 세계언론산업의 양질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생생한 토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 세계 언론인들의 흥겨운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울러 다가온 엔데믹 시대에 전 세계 관광업계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서울관광 홍보 사업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꽃피는 아름다운 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기자협회 소개

역사를 기록하는 한 줄의 글,  
현장의 생동감을 전달하는 사진과 영상,  
소명과 열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들,  
그 기자들 뒤엔 언제나 한국기자협회가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8월 17일 일선기자들의 자발적인 공감대 속에 탄생해 올해로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언론자유 수호 투쟁, 회원의 친목과 권익옹호,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 국제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라는 5대 강령을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5대 강령은 한국기자협회의 존립 이유이자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현재 전국 199개 회원사, 1만 1천여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단체입니다. 협회는 매주 5만부의 '기자협회보'를 발행해 언론계 이슈를 생산하고 각종 주요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주제로 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 개최, 기자들의 장단기 연수, 국내 대학원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언론인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선 기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품격 높은 기사 생산을 유도해 저널리즘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정보(일명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자들의 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언론윤리강령 강화를 위한 실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윤리적인 언론 문화 조성을 위해 언론현업단체들이 모여 가치 '통합형언론자율기구'를 구성중입니다. 이밖에도 세계 언론단체와 공조해 언론의 신뢰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저널리스트 활동지원, 논술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해마다 전국기자축구대회와 기자 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한국기자협회 소개

한국기자협회는 세계 언론인들과의 유대강화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1966년 IFJ (국제기자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993년 중국기자협회, 1994년 베트남기자협회, 2013년 인도네시아기자협회, 2014년 몽골기자협회, 2015년 불가리아 기자협회, 2018년 러시아 기자협회와 상호 기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자협회와 우즈베키스탄 기자협회와도 지속적으로 연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기자들과의 정기교류는 국가 간 외교를 뛰어넘어 민간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기자협회는 더 많은 외국 언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001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기자연맹(IFJ) 정기총회와 2003년 동아시아 기자포럼, 2005년 아시아기자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2007년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를 서울과 북한의 금강산과 개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중국·베트남 3국 기자들이 함께하는 콘퍼런스를 연 바 있으며,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언론단체들과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언론자유와 세계 기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세계기자대회를 통해 각국의 기자들과 연대를 강화함은 물론 언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제48대 김동훈 회장과 집행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매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널리즘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 그리고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는 앞으로도 국제 언론인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와 우정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시대를 앞서가는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세계기자대회

#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4(Sun) - 26(Tue) April 2022



2022 세계기자대회

## 콘퍼런스 I

---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

- 약력
- 발표자료

2022년 4월 25일(월)



컨퍼런스 I		
주 제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	
사회자	<b>정민호</b> 코리아타임스 디지털 콘텐츠 팀장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159
발제자	<b>엘리라 칸가</b> 유럽안보협력기구, 미디어 프로젝트 매니저, 알바니아	160
	<b>하비브 투우미</b> Bahrain News Agency, 미디어 고문, 바레인	163
	<b>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b> The Daily Star, 전 선임기자, 방글라데시	167
	<b>치민 우</b> Global Times, 편집장, 중국	177
	<b>마가렛 오할보</b> Al Dia Noticias/SIR Radio, 편집자 겸 선임기자, 콜롬비아	182
	<b>플레밍 잇첸</b> Politiken, 편집자, 덴마크	185
	<b>토비아스 카이저</b> Die WELT, EU특파원, 독일	189
	<b>말릭 솔레마나</b> New Times Corporation, 선임기자, 가나	192

2022년 4월 25일(월)

발제자	<b>닐리마 마투</b> Formedia, 이사/트레이너, 인도	194
	<b>란지트 쿠마르</b> Ravivar, 전략 부문 분석가, 인도	197
	<b>사비나 인더짓</b> 인도기자연합회/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부회장, 인도	200
	<b>알리레자 바라미</b> ISNA News Agency, 편집장, 이란	206
	<b>푸네 네다이</b> Shokaran Magazine, 편집장, 이란	209
	<b>프랭크 맥널리</b> The Irish Times, 칼럼니스트, 아일랜드	211
	<b>안토니오 모스카텔로</b> Askanews, 기자, 이탈리아	214
	<b>카나트 아우예스베이</b> LLP (Media Holding), 정책관, 카자흐스탄	217
	<b>정은령</b> SNU팩트체크센터, 센터장, 한국	220
	<b>안형준</b> MBC, 기자, 한국	224
<b>쿠반 타발디예프</b> Kabar News Agency, 편집총국장, 키르기스스탄	227	

2022년 4월 25일(월)

발제자	<b>출룬바토르 돌고르</b> 아시아기자협회 몽골지부, 회장, 몽골	230
	<b>비시누 고탐</b> Rising Nepal, 편집장, 네팔	233
	<b>케샤브 프라사드 푸델</b> New Spotlight, 편집자, 네팔	236
	<b>나시르 아이자즈</b> Sindh Courier, 편집장, 파키스탄	239
	<b>고레시 케네스</b> South Pacific Post, 정치부 편집위원, 파푸아뉴기니	242
	<b>로잘린 갈가네라</b> 아시아기자협회, 특파원, 필리핀	245
	<b>레오니디오 페레이라</b> Diario de Noticias, 부편집장, 포르투갈	249
	<b>티무르 샤피르</b> 러시아 연합기자협회, 사무국장, 러시아	252
	<b>카다르 아울 이스마일</b> 소말리아기자연맹 (NUSOJ), 정보인권국장, 소말리아	254
	<b>제이 알렉스 타퀴노</b> 미국기자협회, 전 회장, 미국	256
<b>도 호아미 응우옌</b> 베트남기자협회, 국제부 부국장, 베트남	259	

사회자



정민호

코리아타임스 디지털 콘텐츠 팀장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정민호는 코리아타임스의 디지털 콘텐츠 팀장 겸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2022 세계기자대회



발제자



엘리라 칸가

유럽안보협력기구  
미디어 프로젝트 매니저  
알바니아

엘리라 칸가는 11년동안 지역 및 외교 분야의 기자 겸 편집자로 근무했다. 그는 티라나의 BBC사무국에서 일했다. 추후에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미국 국제개발처 및 영국문화원과 같은 조직에서 미디어 개발자, 미디어 프로젝트 관리자 및 트레이너로 일했다.

정보 필터링- 현대사회의 필수

필자는 “발칸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를 생산한다”라는 속담으로 유명한 유럽 남동부의 아주 작은 나라 알바니아 출신이다. 물론 건강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뉴스와 정보도 그보다 많이 생산한다.

솔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진 모든 뉴스를 흡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선별하여 걸러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 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정보를 평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엘리라 칸가 |

- 이 뉴스에 출처가 있는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가?
- 날짜와 시간이 있는가?
- 이 정보가 공개된 이유는 무엇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활용해 뉴스를 선별하고 평가하며, 의심스러워 보인다면 신뢰할 수 없거나 특정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정보를 제외할 수 있다.

반면 자문해 볼 수도 있다. 일반대중도 이러한 질문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가? 대중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식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도구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팩트체커(Fact-Checker)의 업무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의 확인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업무 중 대부분 시간을 진실을 찾는 일에 할애한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정보는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속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팩트체커는 필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조국 알바니아의 사례를 공유해보자. 검증된 정보가 아닌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 또는 비즈니스 의도를 갖고 이쁘게 뉴스로 포장된 ‘선전용 뉴스’가 떠오른다.

알바니아 언론은 오랫동안 양극화되어 두 개의 주요 정치 진영간의 대립·분열을 추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공익에 기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뉴스보다 정부가 직접 전달하는 선전과, 정부의 성공 또는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스토리가 더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정치 캠페인의 경우, 특히 소규모 그룹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팬데믹 기간 동안 선거 캠페인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정치 후보자만의 일방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변화되었다.

반면, 알바니아 언론은 선거 기간 동안 회의나 공개 행사를 허가 받지 못한 채 선거법에 따라

엘리라 칸가

각 정당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방송해야 했다.

알바니아에는 필자가 4년 전 발기인 중 한명으로 참여한 'Faktoje(사실 확인)'라는 팩트체크 서비스가 있다. 필자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누렸다.

Faktoje는 공공기관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이 무대응으로 나서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것이 알바니아 사회의 문화 그 자체이며, 투명성과 책임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Faktoje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다. 새로운 부문(rubric)은 위기의 시대에 허위정보를 밝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뉴스, 사진, 비디오를 평가하며 사실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필자는 이것을 가짜뉴스와 의견으로부터 팩트(사실)를 가려내는 공공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시야를 넓히고 투표 전과 발언 전에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대중에게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대중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이다. 사실 확인에 관심을 돌리는 것 외에도 대중이 사실이나 진실을 잘못된 정보, 선전, 음모 이론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회의 속에서 방향을 잃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대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발제자



하비브 투우미

Bahrain News Agency  
미디어 고문  
바레인

하비브 투우미는 미디어, 미디어 플랫폼, 대중 커뮤니케이션 및 국제 관계의 변화하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40년동안 언론인, 칼럼니스트, 편집자 및 역량 강화 트레이너로 근무했다. 그는 미디어 생성의 도구가 더 이상 언론인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두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전 세계 저널리즘이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미디어 동향, 미디어 사용 및 남용, 허위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적극 참여한 바가 있다. 그는 복잡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가치와 원칙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는데 전념을 하고있다.

팩트체크...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 '고양이와 쥐의 게임'

새로이 출현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를 메시지에 통합하는 아찔한 기술 진보와 전 세계로 쉽게 전파되는 설득력 있는 보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관점을 재구성하고, 기대에 도전하며, 때로는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

오랫동안 신문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시민언론이 도래하면서 방송 보도와 신문을 제작하는 기존의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스마트폰 덕분에 보통의 사람들은 가족모임, 파티, 사교모임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 범주를 벗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사건,

하비브 토우미

공개연설, 교통사고, 기상이변 등 온갖 것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및 시민언론은 언론인과 주류언론의 관심을 끌 정도로 중요해졌다. 언론인과 언론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살거나 사고 발생시 우연히 해당 지역에 있었던 일반인으로부터 현장에서의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입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현장 콘텐츠를 입수하기 위해 일반 대중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매우 편파적인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코로나19 발생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속보나 더 많은 수의 팔로워를 위한 경쟁 그리고 선정적인 기사, 특집, 표현들은 사회를 한층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나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인들은 종종 기자정신이나 훈련이 부족하며, 세부사항을 정확·적절·정직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내용이나 의견 및 보도는 종종 검증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아젠다나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견해의 영향을 받는다.

언론인은 주요속보를 급속히 전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의심 없이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사실로 내보낼 경우 대중을 기만할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언론인은 유명세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음모론 지지자,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뜨린 잘못된 허위정보에 현혹될 때,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언론의 질을 떨어뜨려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많은 언론이 자신들이 게재한 기사가 허위이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알게 된 후 기사를 철회하고, 사과하고, 때로는 기자를 해고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기도 한다.

놀랍게도 이러한 당황스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겪을 위험이 있음에도 일부 언론은 계속해서 본래 의미의 언론인과는 거리가 먼 '네티즌'이 제공한 비디오를 게재하고 이를 속보로 전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들 중 다수는 사건을 창의성과 이윤을 얻을 기회이자 재미, 농담, 소문, 의혹 제기, 거짓말, 인격모독이 자행되는 '비옥한 생태계'로 간주한다.

하비브 토우미

내용과 사진을 조작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풍부한 상상력'은 사고, 위기, 두려움, 불안감을 노리는 악의적인 의도와 놀이나 재미에 대한 왜곡되고 이상한 감각, 정적을 쓰러뜨리거나 비난할 기회, 혹은 이윤 추구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정보기술 혁명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첨단 기술은 팩트 왜곡과 내용 조작을 간단하고 쉬운 일로 만들었고, 이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과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앱으로 인해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고 현실세계와 팩트를 대체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기하급수적 기술진보'는 세상을 유린하는 허위정보 제작에 남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공할 만한 상황은 언론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게 했다.

국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허위정보에 대한 국가의 조치가 제한적이며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언론기관과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과 비영리기관에 팩트체크 부서를 두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세기 이상 취재와 보도를 해온 신문사조차 허위정보 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검증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국제적인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팩트체크를 촉진하고 언론인에게 의견 및 전문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허위정보와 오해의 쓰나미 속에서 현명하고, 스마트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팩트체커는 언론과 대중이 기사나 사진 등이 거짓인지를 알아내, 팩트에 기반한 기사나 사진, 비디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팩트체커는 자신의 견해와 생각에 대한 도전을 거부하는 완고한 사람들을 상대하며 비난

하비브 토우미

까지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멘탈을 소유해야 한다.

팩트체커의 또 다른 과제는 언론인들 사이에 팩트체크 윤리를 촉진하고 젊은 기자들에게 기사 송출 전 내용 검증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팩트체커는 오보와의 싸움에서 전문가(학자, 의사, 과학자, 연구자 등)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담론과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신뢰도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현재 북미와 유럽 여러 나라에 팩트체크 사이트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는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점차 확산 추세이다.

지역사회와 재단은 이러한 사이트가 번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은 팩트체크 사이트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금을 조달하고, 언론과 팩트체크 부서, 선도적인 플랫폼 간에 투명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유도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팩트체크가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신념이나 양극화 상황,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이나 뿌리 깊은 신념을 가진 집단 간의 양극화 이슈의 경우 팩트체크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다. 일부 단체는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검증된 정보를 대할 때 해당 이슈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은 지켜져야 한다. 팩트체크가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훌륭한 언론 관행과 진실을 촉진하고,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에 도전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크다. 이를 통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미디어 역량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상을 좀 더 진실한 장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발제자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

The Daily Star  
전 선임기자  
방글라데시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영문 일간지중 하나인 데일리 스타에서 20년동안 저널리즘 경력을 쌓았다. 그는 도시화,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전, 도시계획, 하천 보존, 안전한 건설, 불법 부동산 개발, 도시교통, 재난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정보확산 이전 팩트체크의 중요성

우리는 정보가 사람들의 민주적 권한과 복지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정보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나쁜 정보(bad information),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및 허위정보(disinformation)와 싸워야 한다.

나쁜 정보는 삶을 파멸시키고 증오를 조장하며 공중보건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다.

결국 혼란, 우유부단, 잘못된 결정을 초래하고 전문 언론인들의 직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의 결과는 개인이나 커뮤니티 일부, 또는 사회 전체에도 매우 해롭다.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기술이 증가하는 오늘날, 수십억 명의

■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

사람들이 강력한 디지털 공간에 액세스할 수 있고, 누구나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소스에 대한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Alpha and In Limbo의 저자인 소설가 AD Aliwat는 "모든 정보는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라고 말했다.

인터넷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몇 번의 간단한 키 입력으로 정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세상을 선사했다. 하지만 개인과 사회 전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거짓정보 역시 퍼뜨리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2월, 사망자 수와 가짜뉴스의 정점이 아직 현재 수준에 미치지 않았을 때 세계보건기구(WHO)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가짜뉴스의 영향을 깨닫고,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리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인포데믹(infodemic)과도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보나 주장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뉴스 포털을 통해 유포되든 뉴스매체를 통한 인쇄물로 유포되든 상관없이 확산 전에 팩트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치 관련 뉴스뿐 아니라 모든 정보에 해당된다.

Clarify.Media의 설립자인 Damaso Reyes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기자와 편집자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구를 만들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든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위해 팩트체크가 필수라는 점을 이해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정확성, 투명성, 책임성을 위해 팩트체크된 정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건 언론인이 수행하는 전문적인 역할에 대해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얻고 유지해야 한다.

■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

팩트체크는 잘못된 정보를 밝히고, 사실을 바로잡으며, 미신과 가짜뉴스를 폭로하고, 공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아가 더 크고 집단적인 공익을 위해 조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팩트체크는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가 모두의 의견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 정보를 근거로 행동한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고, 이러한 결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들이 게시된 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전문언론으로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또는, 가짜뉴스가 확산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사 결정과 의견형성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BuzzFeed News의 편집자이자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관련 세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Craig Silverman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자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개인들(혹은 시민, 트롤)이다. 두 번째는 더 큰 규모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비용을 들이는 국가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선전 도구다.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나 중국의 50센트군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페이스북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광고 수익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금전적 행위자다.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FCN) 부국장 Cristina Tard Guila는 언론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재계재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팩트체크는 우리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몇년 간 팩트체크는 언론에 널리 보급되었다.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팩트체크 조직의 수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언론매체와 연계된 언론활동으로 간주되곤 하지만 NGO, 자선단체, 그리고 언론과 연계되지 않은 조직도 이에 집중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는 교차사용이 가능한 용어다.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는 몇몇 유사점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

사람들이 거짓인 줄 모르고 퍼뜨리는 잘못된 정보와 달리, 허위정보는 사람들이 그 부정확성을 충분히 알면서 퍼뜨리는 거짓 정보다.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악의를 갖거나 미심쩍은 의도를 갖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관되어 있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잘못된 정보의 공유가 의도치 않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매체나 편집자 사이트에서 팩트체크 없이 잘못된 정보를 보도한다면 이 잘못된 정보는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잘못된 정보는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백신반대 운동과 같은 여타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와 싸우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개인과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인과 기자는 자신이 만드는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으며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보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Poynter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언론인의 80%가 온라인의 잘못된 정보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정보를 연구하는 전문가인 Joan Donovan에 따르면 언론인과 언론 매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보도가 이를 증폭시킨다.

이에 구글은 언론인의 팩트체크를 돕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툴을 공개했다. 언론인과 기자는 사실을 확인한 정보만 보도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팩트체크 현황**

일반적으로 표준 팩트체크 방식에는 △주장의 조사 △주장이 제기된 배경과 맥락 조사 △데이터 증거나 반박을 통한 주장 평가 △주장의 거짓 요소 파악 △주장의 정확도에 대한 결론이 포함된다.

팩트체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우려 및 "대체 사실"을 홍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과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

맞물려 최근 몇년 간 매우 성장했다.

Africa Check, Chequeado 및 Full Fact는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말한다. 차세대 팩트체크는 인터넷 규모의 팩트체크 기능을 만들고, 강력하게 협력하며, 국경을 넘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2003년 factcheck.org, 2007년 PolitiFact 및 The Washington Post Fact Checker가 설립되면서 정치적 팩트체크가 수년간 존재해왔다. 2012년 이후에는 수십 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책무를 다하는 언론(accountability journalism)을 대표하는 팩트체크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팩트체크 조직에는 미국 정치의 기만과 혼란을 줄이는 데 전념하는 펜실베이니아대학의 Annenberg 공공정책센터의 FactCheck.org가 있다.

2018년 Poynter Institute에서 인수한 PolitiFact는 초당파 사이트로서 정치적 진술의 진실 수준을 평가하는 "truth-o-meter"를 특징으로 한다.

전국 언론감시단체인 Fair는 언론의 편견과 검열에 대한 비판을 전문으로 한다.

최초의 팩트체크 및 미신타파 사이트인 Snopes는 확인할 가치가 있는 모든 이야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 독립적 조직이며, Health Feedback은 건강 및 의료 관련 언론보도에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전 세계 과학자 네트워크다. WHO Myth Busters의 주요 역할은 유엔시스템 내에서 국제보건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것이고, Google Fact Check Tools는 Fact Check Explorer와 Fact Check Markup의 두 가지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도구 모두 팩트체커, 언론인 및 연구원의 작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Poynter Institute의 IFCN은 연중 다양한 이벤트에서 팩트 기반 보고에 대한 작성자와 소비자를 통합하여 보편적인 정보생태계의 무결성을 촉진하고 유지한다.

IFCN은 팩트체크의 우수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당파적이고 투명한 팩트체크는 책무를 다하는 언론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출처가 없거나 편향된 팩트체크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키고 언론과 전문가에 대한

■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다음은 전 세계 팩트체커 간의 협의 결과다. 일상업무에서 팩트체커를 하려는 양심적 실무자에게 원칙을 제공한다.

188개 팩트체커 조직이 6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8개국의 82개 팩트체커 조직이 IFCN 5원칙에 서명했다.

IFCN 5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초당파성과 공정성
- 나)출처의 기준과 투명성
- 다)자금과 조직의 투명성
- 라)방법론의 기준과 투명성
- 마)개방적이고 정직한 수정 정책

각각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초당파성 및 공정성: 모든 팩트체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출처의 투명성: 독자가 팩트체커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출처를 상세히 제공한다.

자금과 조직의 투명성: 자금 출처가 투명하고 기타 조직의 자금 지원이 보고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자는 팩트체커와 소통할 수 있다.

방법론의 투명성: 선택, 연구, 집필, 편집, 출판 및 수정의 팩트체커 방법론을 설명한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수정: 수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정책이 공개된다.

팩트체커 이니셔티브는 이 원칙코드에 서명함으로써 서명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들 5원칙이 매년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공개 보고서 작성에 동의한다.

독자와 다른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팩트체커가 원칙코드를 준수하고 있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

전 세계적으로 팩트체커 조직의 수와 IFCS의 팩트체커 원칙코드에 서명한 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된 코드는 2020년 4월에 발표되었다.

팩트체커 정상회담

IFCN talks는 팩트체커와 시민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장려하는 월간 행사다. 각 대화는 세계적으로 잘못된 정보와의 전쟁에서 만연한 주제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설계된다.

Global Fact는 55개국 이상에서 팩트체커, 언론인, 엔지니어, 정책 입안자, 리더그룹, 교육자, 대중 등 언론의 진실과 투명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계 최대규모의 연례 팩트체커 정상회담이다.

2020년, Global Fact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온라인으로 이동한 최초의 주요 언론 컨퍼런스가 되었다. 16개 시간대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상으로 참석했다. 대면 컨퍼런스는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 마드리드, 로마 및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으며 2019년에는 55개국에서 300명 이상이 참가했다.

4월 2일은 IFCN이 2016년에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중요한 임무를 축하하고 강조하기 위해 만든 국제 팩트체커의 날이다. 팩트체커를 한데 모으고 진실 추구에 대한 최고 기준을 유지하는 그들의 역할을 옹호한다.

언론자율규제 기관 운영

새로운 미디어가 일반인의 생각 공유를 독려하는 반면, 민주주의에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뉴스와 분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독립적인 언론인이 필요하다.

자율규제 메커니즘의 중요한 과제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언론자율규제는 억압적인 환경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반면 미디어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자율규제는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팩트체커 기관이나 사이트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으로, 이는 시작부터 필요하다.

여기에는 검증 방법, 팩트체커의 한계, 사이트 및 해당 직원의 자금조달 등이 포함된다. 팩트체커 사이트가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팩트체커의 자금

■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

조달은 여전히 "백만 달러짜리 문제"다.

팩트체크 일은 소셜 미디어 사용 패턴부터 리소스 부족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전 세계의 팩트체커들은 잘못된 정보를 식별하고, 수정하며, 발견한 내용을 전파하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팩트체크에 대한 자금 지원과 연구가 가장 집중된 북미와 서유럽 외의 국가에서는 매우 다르다. 그런 문제는 저개발, 무력 충돌 또는 권위주의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특히 더 어렵다.

Financial Times는 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2019년 캠페인을 "왓츠앱 선거"의 일환으로 묘사하면서 인도의 잘못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전년도에 브라질의 Jair Bolsonaro 대선 캠페인에서 나타났듯이 "선거 당국이나 독립적인 팩트체커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하는 폐쇄그룹은 허위정보 캠페인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공공영역을 엄격히 통제하는 억압적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안의 소스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특정 영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앱일 수도 있다. Visa의 정책분석가인 Andy Yee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형식은 KakaoTalk(한국), LINE(일본, 태국, 대만), WeChat(중국)과 같이 '폐쇄 네트워크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한 채널을 사용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보급률 증가는 잘못된 정보 대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현재 팩트체커들은 폐쇄그룹의 의심 많은 구성원이 미심쩍은 정보의 독립적 분석을 의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정보를 폭로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은 상대적으로 개방된 사회의 자금이 풍부한 팩트체크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문제다. 모든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중 일부만 쉽게 검색이 가능한 구조화된 데이터셋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불투명하거나, 부패하거나, 약한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정보가 아예 없거나 액세스가 불가할 수 있다.

■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

실제로 University of Wisconsin대학의 언론학 교수인 Lucas Graves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는 팩트 확인이 가장 필요한, 독립 언론매체가 거의 없는 권위주의적 환경에서 더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고 썼다.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의 소규모 독립 팩트체커를 대상으로 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제3세계의 추가적 문제들은 리소스 부족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

방글라데시에서 자금을 자체 충당하거나 기부자 지원을 받는 팩트체커는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도 지불할 수 없다. 다른 나라 데이터 언론인과 관련기술을 보유한 NGO가 만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자연어 처리도구가 현지 언어의 구문을 분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쓸모가 없다.

종교적 또는 인종적 긴장이 고조되는 국가에서는 팩트체커의 이해관계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잘못된 정보와 소문은 2018년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것처럼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맥락 없이 조작돼 Facebook에 유포된 이미지는 무슬림과 다른 인종그룹에 속한 기독교인 간의 폭력을 조장하는데 사용되었다. Facebook은 이러한 게시물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팩트체크 프로젝트와 협력했지만 이러한 노력에 매우 제한적 리소스만 할애했다.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는 것이 글로벌 팩트체크 운동의 주요 목표지만, 정보전쟁이 벌어지는 분쟁지역에서는 독립적인 팩트체커조차도 공개적으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는 비정부 조직인 StopFake가 러시아 언론이 보도하는 우크라이나 정보에 대해 의심스러운 출처, 조직, 위조 등을 엄격하게 팩트체크한다.

독립적인 팩트체커는 청중이 있는 국가의 외부에서 활동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도 한다.

이란 지도자들과 이란 언론의 주장을 확인하는 토론토 기반 프로젝트 FactNameh("사실의 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FactNameh의 설립자에 따르면 그러한 작업은 이란 자체에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 모하메드 타우피케 알리

반면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 정보 액세스와 독자의 관심도 제한된다. 왜냐하면 일부에 의해 '외국 에이전트'로 불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는 팩트체커는 종종 고유한 솔루션이 필요한 특별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팩트체커 간의 네트워킹, 교환 및 상호 지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수단이다.

발제자



치민우

Global Times  
편집장  
중국

치민우는 글로벌 타임즈의 편집장으로 근무중이다. 이전에는 8년 가까이 피플스 데일리의 국제 뉴스 부국장으로 논평 부문을 책임졌다. 그는 중국 지도부와 반대파간의 회의를 취재하는 기자였다. 그의 보고서 중 일부는 2013년에 출판된 고위 외교에 관한 그의 선집 특별 보고서에 실렸다. 그는 China News Awards의 수상자였으며, Warwick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진실 전파 및 국제적 도덕 양심 수호

필자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어판과 영어판을 동시에 발행하는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이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연례행사의 두 번째 참석이다. 지난 번은 2016년으로 80여개국의 언론인들이 대면 토론을 하고 평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다.

또한 한국의 몇몇 도시와 마을도 방문했다. 찬란한 봄날에 새겨진 추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다른 형태의 행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떠오르게 한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얽힌 한 세기동안 볼 수 없었던 세계의 주요 변화를 배경

■ 치민 우

으로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언론의 시대의 사명을 되돌아보았다.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및 일부 지역의 혼란으로 인간의 양심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찬양하며 인류의 영적 고향을 지키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과 진실을 찾고 사안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 양심을 일깨워야 한다.

2020년 4월 우한의 "봉쇄"가 해제된 후 진행했던 인터뷰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것은 진실을 찾는 여정이기도 했다. 깊은 인상을 남긴 한 가지 이야기는 강승석 주우한한국 총영사에 대한 것이다. 그는 팬데믹이 매우 심각했던 2020년 2월 전세기를 타고 후베이성 성도 우한에 도착했다.

중국인들은 그의 "반대행보"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양국 국민이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남다른 우정을 과시하고 양국 국민의 공감을 고양시켰다"고 말했다.

당시 주중한국대사관에도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것"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서울의 랜드마크 건물에는 중국어로 "힘내라 우한! 힘내라 중국!"이라는 문구를 디스플레이 했다. 시련 속에서 드러난 이러한 진실한 우정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연대를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우의를 한층 강화했다.

우한여행 중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전세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포기하고 팬데믹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국인과 함께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배려와 응원은 꾸준하고 따뜻한 힘을 보여주며 마음을 울렸다.

화중사범대학의 케냐 유학생 Raphael Mwatela는 중국의 방역 노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즉 대중이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최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 위기 극복에 필요한 기본 요소라고 했다. 그는 "중국인은 정부를 매우 신뢰한다"고 믿고 있었다.

■ 치민 우

그의 평가는 76일간의 봉쇄 기간 동안에도 우한에서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여러 나라의 체류 경험이 있는 프랑스 청년 Aurelien Viard는 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면 외국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그런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중국뿐이라고 했다.

그는 후베이성 쉬이저우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 마스크와 소독제를 전달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에 맞서 싸우는 중국사회 전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도 느꼈다고 말했다.

인터뷰한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고향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꾸준히 이야기했다. 또 그들이 중국에서 본 것을 메시지나 사진 및 비디오로 찍어 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국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중국의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인종차별도 없었던 것을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증명할 수 있다고 세계를 향해 말했다.

특히 Raphael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서방 사람들과 언론사의 편견에 맞서서 진실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서방 사람들이 중국을 비판하는 이유를 중국 방역의 중요한 결과를 세계인이 더 많이 인식할수록 서방 세력이 더욱 두려움, 즉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한대학의 모로코 유학생 Hanane Thamik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중국의 빠른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팬데믹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우정, 연대 및 협력의 빛나는 빛이 안개를 걷어내는 것을 보았다. 또한 정의와 악 사이의 투쟁을 보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화합과 협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바이러스"가 얼마나 사악한지 알게 되었다.

■ 치민우

모두 알다시피 2년 넘게 일부 미국과 서방 정치인들은 팬데믹을 정치화했으며 심지어 정치적인 조작을 통해 바이러스 기원의 추적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끝없는 중상모략과 유언비어 유포로 중국을 비방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들이 유일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자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었다. 미국은 왜 미국 초기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가? 1백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는가? 포트 데트릭(Fort Detrick)에 있는 생물학 연구소 및 해외 300개 이상의 생물학 기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타당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폭로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다. 글로벌 타임즈는 공정과 정의를 굳게 수호하는 언론매체로서 항상 진실을 찾는 일에 앞장서 왔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일부 미국 정치인과 언론매체가 이른바 실험실 누출이론으로 중국을 비방하자 글로벌 타임즈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포트 데트릭 기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 10월 남중국해에서 USS 코네티컷(Connecticut)과 “미지의 물체”가 충돌한 사건에 대해 미군과 미 정부에 책임을 묻고 진실 공개를 요구하며, 핵추진 잠수함이 정확히 무엇과 충돌했는지, 핵 누출이 있었는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킬지 여부에 해명을 촉구하는 또 다른 청원을 시작했다.

이 청원은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는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현재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으로 전 세계의 팬데믹 예방 및 통제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강조해야 할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의 전쟁은 세계 공중보건 안보와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번영과 발전을 유지하고 국제적 도덕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인류가 최대한 빨리 팬데믹을 극복하여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평화, 개발 및 발전의 혜택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 미래 커뮤니티의 개념을

■ 치민우

옹호하는 것이 양심을 반영한 추구다.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진실을 전파하고 국제적 도덕 양심을 확고히 수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

발제자



마가렛 오할보

Al Dia Noticias / SIR Radio  
 편집자 겸 선임기자  
 콜롬비아

마가렛 오할보는 콜롬비아의 수석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을 공부했으며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다양한 TV 및 라디오 쇼의 감독이자 앵커였으며 다양한 온라인 및 인쇄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그는 최고의 TV 보도로 "National Press Award "Sim n Bolivar"를 수상했다. 그는 "International Candean Press Medicine Award"(라탐상)를 수상했으며 실제로 그는 일일 라디오 뉴스 쇼인 "Al D a Noticias"의 수석 기자이다. 또한, 미국 유럽 뉴스 라디오 시스템인 SIR의 수석 저널리스트이자 RCLatin의 주간 라디오 쇼의 감독 겸 앵커이기도 하다.

언론인이 바꾼 사회

언론인이란 직업을 갖게 된 것은 내게 큰 영광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TV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았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매우 위험한 지역들을 옮겨 다니며 분쟁을 취재하는特派원들을 보았다.

또한 최신기술의 발전, 선거 캠페인이나 글로벌 리더에 대해 이야기하는 괴짜들 혹은 주석 전문가들의 신문 칼럼이나 블로그 기사를 읽는다.

마가렛 오할보

언론인과 언론매체가 기사를 작성하고 서술하는 방식을 가이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편집기준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반사항과 각 출판사별 특이사항이 포함된 스타일 매뉴얼이 그것이다.

뉴스 전달방식에 대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20세기 이전부터 소스(출처) 관리방식과 윤리강령 등이 채택되어왔다.

언론인들 업무 비결은 간단하다. 여러 소스를 보유하고 그 소스를 비교하며 다른 목소리와 다양한 관점에 귀를 기울여서 대중에게 하나의 주제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출처는 중요하고 사실을 기본으로 하며, 언론인은 주제에 대한 지식, 분석 기술, 그리고 상식을 갖춘 전문가인 동시에 훌륭한 작가나 이야기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출처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 두 개 이상이 필요하다. 언론인은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물은 것을 기록해야 한다.

팩트체크: 보도의 진실성과 정확성

팩트체크는 언론의 탄생 이래 줄곧 존재해왔다. 그 목적은 공개될 또는 이미 공개된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언론사는 내부에서 팩트체크를 할 수 있지만 제3자를 통해 수행할 수도 있다. 효과적인 규제 및 통제 방법이다. 이 관행은 투명해야 한다. 뉴스룸, 언론인 및 편집자가 잘 설명하고 검증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팩트체크를 전담하는 독립조직이 미국에서 설립되었고 이러한 조직은 최근 몇 년 간 유럽과 중남미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확산되었다.

팩트체크는 잘못된 정보, 오류 및 정보조작을 다루는 핵심 방법론이다. 그것은 검열이 아니라 자율규제다.

정보의 진실성 확인을 위해서 수행하는 팩트체크를 검열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인은 항상 존중받아야 하며 기사나 출판물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외부의 개입은 반드시 당사자와 상의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마가렛 오할보

기사의 품질은 뉴스룸과 전체 편집영역에서 그 규모나 전문성에 관계없이 언론 프로토콜에 따라 기사나, 연구조사 혹은 연대기 및 인터뷰 등 전 영역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

기자과 편집자는 발행될 정보를 검토하고 검증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정당하며 이는 결코 자기검열이 아니다. 소셜 미디어나 비윤리적인 매체, 그리고 블로그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매일 진실이 의심되는 시대에 언론인들은 탐사, 인터뷰, 데이터,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쉬운 언어로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청중(독자)은 정보를 이해하고, 각각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4년 런던 정경대에서 열린 언론인과 팩트체커의 간담회에서 ‘국제 팩트체커의 날’을 기념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에 2017년 4월 2일 ‘제1회 국제 팩트체커의 날’이 제정되었다.

발제자



플레밍 잇첸

Politiken  
편집자  
덴마크

플레밍 잇첸은 CV 에디터이자 칼럼니스트, 전 동아시아 특파원, 덴마크 대학의 아시아 및 미국 역사 강사이다. 또한, 중국과 미얀마에 관한 책의 저자이다.

언론이 소셜미디어 자율규제해야

인터넷은 지난 1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한때 ‘언론자유당의 언론자유파’라고 자부하던 주요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이견과 공격적인 발언을 단속하면서 점차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Big Tech)는 수용 가능한 생각들의 비공식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만끽했었다.

여러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유럽 정부들도 신뢰할 수 없고 조작된 채 노골적인 가짜뉴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만큼은 10년간 함께 해왔다. 2022년 3월 영국 정부는 의회가 세계 최초로 온라인 안전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 새로운 조치에는 초대형 IT기업(테크 거물, tech boss)에 대한 강력하고 빠른 형사 제재 및 데이터 위조는 물론 파기에 대한 형사 범죄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온라인안전법(The Online Safety Bill)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사용자에게는 더욱 안전한 동시에 테크 거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하나의

■ **플레밍 잇첸**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법안의 다른 목적은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동시에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의 콘텐츠 게시를 허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 앱, 웹사이트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불법 활동을 단속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명시된 이용 약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정부 규제기관(Ofcom)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관행 개선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이트 차단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Ofcom과의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Ofcom의 사무실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회사의 고위 관리자가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추가되었다.

그 무렵 유럽연합(EU)은 유럽에서 초대형 IT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칙을 제정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Alphabet의 Google, Amazon, Apple, Meta 및 Microsoft 등의 초대형 IT기업은 핵심 비즈니스 관행을 변경해야 유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부당경쟁 조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경쟁담당 수석위원 겸 부의장인 덴마크의 Margrethe Vestager가 제안한 디지털 시장법(DMA)은 데이터 및 플랫폼 액세스를 제어하는 회사에 대한 규칙을 설정한다.

DMA에 따라 초대형 IT기업들은 메시징 서비스의 상호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해야 한다. 비즈니스 사용자는 플랫폼 안에서 경쟁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플랫폼 밖에서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경쟁사의 서비스보다 자사 서비스를 장려하거나 사용자가 사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DMA는 시가 총액 750억 유로, 연간 매출 75억 유로,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된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회사에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 **플레밍 잇첸**

부과되며, 다시 위반할 경우 20%까지 부과한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전쟁에 대규모 디지털 무기(artillery fire)를 사용하는 시대에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유럽인들에게 더 좋고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인가?

현재 유럽 남동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우크라이나 전쟁-은 차치하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은 신중해야 한다. 영국의 새 법안은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온라인 환경,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인터넷이 가장 엄격하게 규제, 검열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엄청난 법안을 만드는데 5년이 걸렸다. 5년이라는 시간은 이 법안의 범위가 얼마나 방대한지, 그리고 일부 비평가들에게는 언론 자유와 관련된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법안이 소셜미디어 회사에 부과하는 '주의 의무'로 사용자가 테크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는 물론,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도 볼 수 없게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해한 콘텐츠'에는 심리적 피해, 허위정보, 트롤링 또는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피해'는 모두 주관적이다. '트롤링'에는 장난스러운 농담에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까지 포함될 수 있다. 테크 기업이 '허위정보'로 판단하는 기준은 진실과 거짓보다는 정치적 편익과 관련성이 크다.

이 피해 목록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영국 문화정보부는 피해 범주를 추가할 권한을 갖게 되며 기업은 영국의 Ofcom에 새로운 '신중 피해'를 보고해야 한다. 법안의 검열 소관은 시간이 지남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Ofcom에 방해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경영진은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 때문에 영국의 Nadine Dorries 문화부 장관은 자신이 빅테크를

■ **플레밍 잇첸**

담당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 기업에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언론의 자유가 축소될 때 고통받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 아니다. 실제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정부가 없애고자 하는 '유해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즉 정치인들조차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한 시민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유해성'의 경계에 있는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선 검열, 후 질의를 하게 된다. 독일의 유사한 법률의 경우 빅테크에 적극적인 검열을 장려하였고, 결국에는 이 법안을 추진한 정부 장관 중 한 명이 검열을 받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빅테크가 아닌 정부가 유해성을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검열을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검열을 제정하는 책임은 여전히 빅테크에 있다. 이 법안에서는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법은 콘텐츠의 검열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 회사에 아웃소싱된 국가의 검열이다.

온라인 안전 법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로운 인터넷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현재로서는 영국에만 해당된다. 단,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EC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온라인 미디어의 자유는 지금 미래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다.

**발제자**



**토비아스 카이저**

Die WELT  
EU특파원  
독일

토비아스 카이저는 브뤼셀 WELT 및 WELT AM SONNTAG에서 EU 특파원으로 근무중이다. 그는 유로, 경제, 금융, 경쟁, 디지털 및 기후 분야의 EU 정책을 다룬다. 그는 2009년부터 WELT그룹에서 다양한 직책으로 일하고 있다. 토비아스는 뮌헨, 코펜하겐, 버클리 그리고 시카고에서 저널리즘, 경제학 및 국제 관계를 공부했으며 뮌헨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쟁 중 팩트체크**

우크라이나전쟁은 팩트체커의 일을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만들었다. 편집국의 팩트체커의 중요성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고, 이는 독일과 유럽 전역의 미디어에서도 동일하다.

재난과 마찬가지로, 전쟁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는 언론사의 중요한 취재·정보원이 된다. 기자, 카메라맨, 사진작가는 현장에 나가기 전 소셜미디어에서 최신 정보, 사진 및 동영상을 찾고 한다. 언론인들은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항상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전쟁 때는 더욱 그렇다. 이해 당사자가 이러한 채널들은 종종 자신들에 유리하게 흘리고, 선전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전부터 소셜미디어에는 전쟁에 대한 루머와 허위정보가 퍼지고

■ 토비아스 카이저

있었다. 실제 러시아의 침공 이후, 허위정보 활동은 더 증가했다. 인터넷에서는 현장 상황이나 관련 이슈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자료에 타당성 있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 경우도 있다. 즉, 실제 기록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독일 등 여러 나라의 팩트체커들이 조사한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잘못된 정보의 사례다.

최근 페이스북에 한 가지 의혹이 퍼졌다. 뉴스채널 CNN이 우크라이나 호텔의 파괴 동영상을 트윗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황폐한 세르비아 호텔의 동영상을 우크라이나 동영상이라며 유포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팩트체커들은 조사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CNN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트윗의 스크린샷이 있었고, 이는 부분적으로 파괴된 호텔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독일의 Correctiv 소속 팩트체커들은 이것이 버려진 세르비아 호텔의 사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구글 사진검색을 역순으로 돌리면서 밝혀낸 것이다. 세르비아 호텔에 대한 구글링 결과로도 비슷한 사진이 검색되었다. 구글지도 검색 결과도 비슷했다. 그것은 폭격 당한 우크라이나 호텔 사진이 아니었다.

더 재밌는 것은 USA Today와 3개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 소속 팩트체커들은 이 주장을 추적하면서 실제로는 CNN이 이러한 트윗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CNN 대변인은 자사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해당 트윗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된 정보로 가짜 CNN 트윗을 조작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해당 스크린샷을 퍼뜨리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예로, 우크라이나에서 시신 가방으로 의심되는 물체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3월 초, 시신 가방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가방이 늘어서 있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퍼져 나갔다. 그 앞에는 마스크를 낀 언론인이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음소거 된 동영상이었다. 한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중 검은색 가방 중 하나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이 동영상이 연출된 것임을 시사하는 장면이었다. 동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독일어권 국가에서도 공유되었다. 이 동영상의 여러 버전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완성도가 매우 떨어진다. 동영상의

■ 토비아스 카이저

오버레이에서 이름 하나를 알아볼 수 있었다.

독일의 'Correctiv' 소속 팩트체커들은 구글검색을 활용해 그 이름이 오스트리아 뉴스채널의 언론인 이름임을 알아냈다. 팩트체커들은 그 언론인 이름과 텔레비전 채널 이름을 이용하여 구글검색을 수행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를 발견했다. 제목은 '비엔나: 기후정책 반대시위'였다. 이 동영상은 러시아 침공 3주 전인 2022년 2월 4일, 오스트리아 뉴스채널의 공식계정에 업로드된 것이었다. 해당 채널의 공식사이트에서도 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 장면이다. 팩트체커의 중요한 발견은 이 동영상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보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엔나에서 열린 기후시위를 촬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수많은 사례 중 두 가지 사례일 뿐이다. 이러한 예는 허위정보가 얼마나 만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문 언론인들이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뉴스룸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이 허위정보를 찾아내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글검색이나 구글지도와 같은 상식적이고 간단한 온라인 도구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효과적인 팩트체크 도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되는 소식이다. 돌이켜보면 팩트체크는 언론의 수준을 높이는데 필수 요소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발제자



**말릭 솔레마나**

New Times Corporation  
선임기자  
가나

말릭 솔레마나는 10년차 기자로 그의 전문 분야는 인권, 환경 및 기후변화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에는 세번째로 참가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 문화, 언론 자유 및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다가오는 행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좋은 언론 프로모팅을 위한 필수**

코로나19는 언론환경을 대폭 바꾸어 놓았고, 이에 발맞춰 뉴스룸, 온라인 플랫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과 잡지 등의 각종 미디어 역시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기자들은 교대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인들은 팬데믹 스트레스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보건 프로토콜 시행과 이동 제한으로 언론인들의 업무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언론으로 가는 길을 막는 글로벌 공통의 비극이다. 이에 이같은 위협에 대비해 뉴스를 면밀히 조사하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요구됐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따라, 팩트체크에 대한 필요성은 한층 더 분명해졌다.

팩트체크는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나 뉴스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가나에서는 소수의 미디어 조직만이 뉴스 보도 전후에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팩트체크는 보통 보도물의 진실성에 의혹이 제기될 때만 이루어지는 까닭에

말릭 솔레마나

대부분의 미디어 조직은 팩트체크를 언론의 질적 고양을 위한 도구라고 여기지 않는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팩트체크가 중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리소스가 제공되는 반면, 가나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의 상황은 이와 반대다.

정보를 제공하는 '소스'의 단호함 때문에 팩트체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위 '아이비리그'라 불리는 미디어 조직이 리트머스 테스트에 실패한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언론인들은 기사 보도 전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보도는 대중에게 독약을 제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디어가 이러한 양방향 필터 과정을 경시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다. 또 언론이라는 명목 하에 표준을 잊지 않도록 기본적인 언론 윤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많다. 사실 뉴스 속보에 치중하거나 주요 언론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 그리고 얼굴 없는 '시민기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언론은 폐쇄적인 직업이 아니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폐쇄된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정확성, 객관성, 진실성 등의 기본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선봉장으로서 공동체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발제자



닐리마 마투

Formedia  
이사 / 트레이너  
인도

닐리마 마투는 40년 가까이 연구원, 작가, 총괄 프로듀서 및 트레이너로 미디어 분야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시청각 전략가, 개발 커뮤니케이터 및 다큐멘터리 및 NGO 영화의 멘토를 전문으로 활동중이며 미디어 및 정보 활용 능력에 관한 유네스코 교육 과정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인도의 일간 영자 신문에 칼럼니스트로 기고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 히말라야 우타라칸드 주에서 열리는 국제 다큐멘터리 레이크사이드 페스티벌 디렉터 겸 큐레이터로 활동중이다. 또한, 커뮤니티 문화 센터인 Utsah Toli의 집행 및 프로젝트 책임자이기도 하다.

언론의 핵심은 검증이며, 팩트체크는 경이롭다

요즘 세상은 언론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상에 가까운 팩트체크에 열심이다. 사람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좋아한다. 이제 뉴스는 팩트체크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오늘밤 파티에서 남들보다 좀더 훌륭한 말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우연치 않게 팩트체크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기관이 3-4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들 기관의 타당성, 즉 이들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논란이 있는 현실에

닐리마 마투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지 결정 내리기 어렵다. 문제는 논란이 되는 사건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과 상황이 팩트체크 프로세스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년 전부터 신문사와 방송사는 자체 팩트체크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사를 송출하기 전후 팩트체크를 실시한다. 검증된 팩트에 대한 의심과 과장된 의견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 이러한 과정이 요구되었다.

한 가지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뉴리퍼블릭>(The New Republic)과 기타 주간지에서 근무했던 스티븐 글래스(Stephen Glass)의 이야기이다. 뉴리퍼블릭은 1900년대 평판이 좋았던 미국 잡지사이다. 글래스는 팩트체커로 자신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 기사로 제출했다. 해당 잡지사의 팩트체커들은 이 기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팩트체커가 아닌 글래스의 기사를 편집했던 마이클 켈리(Michael Kelly)였다. 켈리는 팩트체크 시스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기자가 분명한 의도와 목표를 갖고 가짜뉴스를 전달하려 한다면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진정한 검토 시스템은 팩트체커가 아니라 편집자이다.

이는 우리를 핵심으로 이끈다. 시민 주도형 가짜뉴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내용을 조작해 온 행태에 대한 반발효과일지도 모른다. 이는 조각가 로맹의 ‘칼레(Calais)의 시민들’처럼 완전한 증거를 부정하고자 하는 인식이거나 혹은 트로츠키의 경우처럼 러시아 공산당 역사와 영원히 거리를 두기 위한 악마화(demonization)일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의 이론인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WYSIATI가 있다. WYSIATI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보지 못하는 것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훌륭한 언론을 위한 우리의 책무와 헌신을 넘어서는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WYSIATI 증후군에 갇혀 있을까? 만약 그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면, 우리는 과연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대답이 “아니요”라면, 가짜뉴스, 허위정보, 아젠다 중심 팩트체크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팩트체크나 자율규제 개념은 언론 관행에 대한 개인적 편견과

■ **닐리마 마투**

견해로 인해 발생했다.

이제 다시 우리 자신과 주변의 팩트에 충실하는 일은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언론의 기본인 객관성으로 돌아가고, 운동(activism)은 운동가(activist)에게 맡기도록 하자.

**발제자**



**란지트 쿠마르**

Ravivar  
전략 부문 분석가  
인도

란지트 쿠마르는 현재 독립 전략 담당기자로 근무중이며 인도의 저명한 힌디어 일간지 Navharat Times와 20년동안 외교 편집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또한 전략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출판물 논평을 쓴다.

**허위정보 전 세계 보편적 현상**

가짜뉴스는 국제적인 현상이며 인도 사회 역시 이 심각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경쟁 또는 대립하는 상대방이나 정당,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데에 얼마나 편리한 도구인지 이전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매체를 통한 거짓뉴스 확산을 막고, 독자 또는 시청자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팩트체크는 언론인 및 언론사의 매우 중요한 책임이 되었다.

필자는 인도의 가짜뉴스 및 팩트체크 현황을 살펴본다. 인도와 같이 민주주의 환경에서 기능하는 다문화, 다민족, 다국어, 다종교 국가에는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커뮤니티간의 분열이 늘상 존재한다. 또 이에 따라 온갖 술책과 음모도 활용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려는 기득권 그룹의 시도도 있다. 한 그룹을 지지하고 경쟁그룹에 대해 비판적이고 모욕적인 내러티브를 확산하여 대중의

■ 란지트 쿠마르

정서를 형성시키는 방식도 그 가운데 하나다.

가짜뉴스와 루머 또는 믿게끔 그럴 듯하게 만들어진 영상이 담긴 왜곡된 뉴스가 주변국에서 유포되어 사회에 분열과 불안을 조성하는 경우도 많다.

현대는 새 기술 출현에 따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가짜뉴스와 메시지가 구두로 전달되었다.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같은 뉴스 매체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전체 콘텐츠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개인이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누군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특히 정치, 사회, 종교집단은 경쟁 집단이 생성해 유포시킨 가짜뉴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가짜 메시지 생성자는 오래되었거나 연관된 사진 또는 비디오를 현재 상황에 그럴듯하게 섞어 귀가 얇은 대중을 오도한다. 이러한 가짜 메시지는 Google 팩트체크 프로세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내 정보 관련 부처는 전담부서 또는 데스크를 설치하여 가짜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인도 정보방송부 산하 언론정보국(Press Information Bureau)은 특히 정부 프로그램이나 성명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전담하여 감시한다. 경찰서의 사이버 조직에는 가짜뉴스, 특히 사회 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정보를 일반 대중이 인지하게 하는 소문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팩트체크 부서가 있다.

인도의 가짜뉴스 관리자의 활동은 총선 시기에 더욱 활발해진다. 가짜 내러티브는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회 또는 주의회 선거 시기에 자주 확산돼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된다. 이에 각 정당 본부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 경쟁 정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주요 신문사, 방송사도 자체 가짜뉴스 확인 데스크를 설치해 독자 또는 시청자의 신뢰도 높이도록 한다.

실제로 언론 관리자는 어떠한 꾸밈도 없이 정확하고 진실한 뉴스 기사를 보도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둔다. 그럼에도 일부 가짜뉴스의 경우 의심할 여지 없이 신뢰성이 매우 높아 보여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기도 한다.

■ 란지트 쿠마르

가짜뉴스는 특히 선거 기간이나 지역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날 경우 등에 인도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WhatsApp을 포함한 여러 메시지 전달 미디어는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이다.

발제자



사비나 인더짓

인도기자연합회 사무총장  
국제기자연맹 부회장  
인도

사비나 인더짓은 선임기자이자 노동조합 활동가다. 그는 정치학 배경과 저널리즘 학위를 가지고 80년대 중반에 주요 영국 일간지의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 그는 뉴스 및 특집 에이전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2년 연속으로 인도 언론 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기록도 있으며 인도기자협회의 첫 여성 사무총장이다. 언론의 자유, 언론인의 권리, 인권, 성평등을 수년 동안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은 정확성이 생명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을 창간한 영국 언론인 CP Scott의 “사실은 불가침, 논평은 자유”라는 유명한 말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적합하다.

웹사이트와 디지털 미디어가 치열하게 경쟁, 확산하며 세계적으로 전통의 활자매체를 위협적으로 추월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 및 균형성은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언론 전문가에게 더 어려운 과제가 된다.

인도의 3세대 언론인으로서 필자는 지금도 다음과 같은 기본 보도원칙을 고수한다.

사비나 인더짓

“진실은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보도는 정확해야 한다.”

기사는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며, 해당 개인이나 기관에 반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름 철자는 기자가 아니라 본인이 쓰는 대로 표기되어야 한다. 선정성은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

기자 의견은 기사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독자가 스스로 평가하도록 놓아둔다. 유감스럽게도, 치열한 경쟁과 새로운 장르의 언론인 시대인 요즘 위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은 점점 더 잠식당하고 있다.

기사를 보도하거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무시되면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민의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1920년대 초, 신문과 잡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발행 전 팩트체크를 채택했던 내부의 절차들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힘을 잃고 있다.

이와 동시에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에서 발간한 “언론의 아이디어와 관행으로서의 팩트체크(Fact-Checking as Idea and Practice in Journalism)”에 따른 외부 팩트체크가 지난 20년에 걸쳐 널리 확산되었다. 온라인에서 유포되거나 또는 정치인이나 공인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한 웹사이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팩트체크는 잘못된 공공정보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 다름 아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이런 문제에 답을 구하고 있다. “뉴스속보 중 온라인 소문이나 시민들의 리포트를 보도할지,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2008년 뭄바이테러와 2013년 보스톤마라톤 폭탄테러와 같은 사건에 대해 세간에 이목을 끄는 보도 오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한 우려의 반영이다.” 21세기 들어 정치인, 언론인, 기타 공공출처의 주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팩트체크 기관이 온라인 상에서 급증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2월 현재, 53개국의 149개 초당파적 팩트체크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팩트체크 사이트가 급증했다. 유럽과 남미는 초기 허브로 부상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은 최근 몇년 간 큰 성장세를

■ 사비나 인더짓

보였다.

듀크대학 언론연구소(Reporters' Lab)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글로벌 팩트체커의 수는 2018년 277개에서 올해는 342개까지 늘어났으며 최근 2년 간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은 팩트체크에 좀더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선거보도의 경우 시민들이 후보자의 소셜 미디어상 거짓 주장이나 진술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캠페인에서 나온 모든 사실과 의견,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가짜뉴스를 가리는 것은 어려운 또 하나의 영역이 되고 있다.

또한 국수주의, 포퓰리즘 및 허위정보가 증가하면서 밀과 쪽정이를 분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소셜 미디어도 현명해지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에 플랫폼이 악용당하는 것을 경계하며 팩트체크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가짜뉴스' 현상이 확산되면서 위험대처에 필요한 올바른 도구를 갖추는 것이 언론 전문가에게 필수가 되었다. 탐사보도는 팩트체크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공익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진실이 묻혀 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활자매체, 방송, 디지털을 막론하고 언론은 독자와 시청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언론인은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며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나 라이벌의 검증되지 않은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팩트체크 조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규범이 하락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로 보아야 하는 역설 때문에 마냥 낙관적일 수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민주주의 국가의 예는 불길한 징조일 수 있다.

■ 사비나 인더짓

팩트체크의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는 통솔기구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은 교육 리소스를 제공하고 #GlobalFact라는 팩트체크에 대한 연례회의를 주최한다.

팩트체크의 모범사례를 홍보하고 전 세계 팩트체커 간의 협업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쁜 정보가 인생을 망친다. 증오를 조장하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한다"라는 표제를 내걸고 있다.

플로리다의 Poynter Institute에는 폴리처상을 수상한 PolitiFact가 있다. 정치인과 권위자에 대해 16,000건 이상의 팩트체크를 공개한 미국 최대의 정치분야 팩트체크 뉴스기관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도 가짜뉴스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팩트체크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FactChecker.in은 뭄바이에 기반을 둔 인도 최초의 팩트체크 전담 기관이다. 2013년 초부터 "공적생활에서 개인이 한 진술의 진실성과 맥락을 면밀히 조사, 연구"하고 있다. 또한 '공적영역에 있는 데이터 조사의 필요성이 큰' 이슈를 선정한다.

"우리는 형용사를 좋아하지 않고, 의견도 좋아하지 않는다. 감정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데이터, 사실, 보도가 우리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Modi-Fied'(Modi 총리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Modi의 성적표"와 같은 섹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Boom은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고 문제를 설명하며 독자들에게 언론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제공하여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독립적 디지털 언론기관이다.

Alt News는 "대다수의 커뮤니티는 여전히 팩트체크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이에 접근하려 한다.

Factly는 "중요한 정부 데이터/정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액세스 및 이해를 개선하여 인도의 공공정보 환경을 변화시키고, 공공정보 및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한 리소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Social Media Hoax Slayer는 다음같이 주장하며 설립되었다. 최근 몇 년 간 빠르게 유포된

■ 사비나 인더짓

소셜 미디어는 반사회적 요소, 범법자, 협잡꾼들로 인간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몇몇 거짓말은 너무나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어 육감인 “상식”을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영향을 받게 된다.

다른 지도자/총리를 뽑는다 해도 국민들이 편향되지 않은 논리적인 마음을 갖추고 “제3세계 국가”라는 꼬리표를 제거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목표는 “종교적, 정치적 극단주의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논리적이며 편향되지 않은 인도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언론인들에게 팩트체크 기관의 성장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사실, 잘못된 정보가 짜짜뉴스 덕분에 정부는 악의를 억제한다는 명목 하에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 있다.

이것이 언론인과 언론 기관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법보다 자율규제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인도에서는 논란의 '2021 정보기술규칙(중계인을 위한 지침 및 디지털미디어 윤리강령)'과 같은 엄격한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온라인 언론의 독립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다.

11개 디지털 뉴스 미디어/출판사 협회인 DIGIPUB News India Foundation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독립적이고, 가장 높은 규범의 언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디지털뉴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양성하며 및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재단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가짜뉴스를 홍보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트롤링에 악용하며, 커뮤니티와 사람들 사이에 증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언론의 영역을 축소시키려는 조직들의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회원들에게 업계수준의 자율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실 자율규제는 인도에서 이미 자리 잡은 개념이다.

Press Council of India Act 1978(PCI)의 규제를 받는 활자매체와 달리 뉴스채널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문과 통신사의 규범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자율규제'가 있다.

News Broadcasters Association는 “필요한 방송에 대한 높은 규범, 윤리 및 관행의

■ 사비나 인더짓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 방송사들의 민간협회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National 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를 구성하고 “악의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퇴행적이거나, 고의적인 부정확하거나, 유해하거나, 오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이해상충을 은폐하는” 콘텐츠를 자율규제하기 위한 모델로 '윤리강령 및 방송규범'을 발행했다.

또한 방송사에 '경고, 비난, 반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어린이채널 등 뉴스 채널을 위해 설립한 Indian Broadcasting Foundation은 2011년 독립적 자율규제 기구인 Broadcasting Content Complaints Council를 설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은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

활자매체의 경우 PCI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문사들이 옴부즈맨을 임명하면서 내부규제를 모색했다.

언론매체가 정부통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율규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이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수용성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언론은 통제될 것인지 아니면 정확성의 엄밀한 법칙을 지킬 것인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발제자



알리레자 바라미

ISNA News Agency  
편집장  
이란

알리레자 바라미는 40개국 이상에서 뉴스를 취재한 기자이며, 동시에 시인, 출판사 및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이기도하다.

방수시계를 찬 언론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소셜미디어가 부상하면서 전통 언론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까지는 이 가설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 언론은 오히려 강세인 듯하다. 전화의 발명으로 책의 시대는 끝났다고들 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인터넷이 발명되어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책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추측이 다시 제기되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확대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를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론적 논의보다 내 나라인 이란 언론의 예를 들고자 한다.

소셜미디어가 확대되면서 이란에서 증가한 가짜뉴스 유형들 중의 하나는 유명 인사, 특히 병력(病歷)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가짜뉴스다. 이런 뉴스는 대개 이란

알리레자 바라미

설날 연휴 동안에 확대되어 거의 2주 정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부고가 전해진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다.

일부 이란 언론사는 가짜 소셜미디어 뉴스의 희생양이 되었다. 내가 일하는 ISNA 통신사는 이에 관한 특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2의 출처'가 더 중요해졌다. ISNA는 유명인이나 중요인물의 사망 소식이 접수되면 제2의 출처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게재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제2의 출처는 가족구성원이나 예술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장례를 준비 중인 협회이다. 물론 ISNA에서도 뉴스 '속도'와 '정확성'에 관한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우리는 뉴스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성' 또한 호흡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요 핵심사항이다. 비전문가도 뉴스 전송 속도를 높일 수는 있다. 미숙련 운전자가 맹렬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겠지만, 전문 언론인에게 뉴스 보도의 속도는 또 다른 문제이다.

사실 숙련 운전자의 속도는 안심이 된다. 그래서 성공한 언론인은 감정과 경험을 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위협'이 '기회'가 되는 지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셜미디어의 이런 뉴스들 중 다수가 가짜로 밝혀져 일반 언론을 인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가상 네트워크에서 뉴스를 게재할 때 해당 뉴스가 정식 언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고자 했다. 청중이 뉴스를 믿게 하기 위해 뉴스가 정식 언론에도 게재되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이란 소셜미디어에 올라있는 수많은 가짜뉴스는 비록 ISNA가 해당 뉴스를 게재하지 않았음에도 ISNA를 인용하였다.

이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를 모방함에 있어 독창성을 잃지 않는 언론이 아직도 신뢰할 만한 출처로 간주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 정식 언론에 더 이로울 것임에 틀림없다.

언론은 외부요인의 영향 하에서도 시계바늘의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지 않은 채 정확한

알리레자 바라미

시간을 보여주는 방수시계처럼 작동해야 한다.

발제자



푸네 네다이

Shokaran Magazine  
편집장  
이란

푸네 네다이는 Shokaran Magazine, Amrood Publication 및 Hoo 아트 갤러리 관리자이며 아시아 기자 협회 부사장 및 AsiaN의 특파원, 시인, 작가, 예술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The Land of Phoenix: A travel diary on Korea, Time footnote, A handful of secret ashes, Typing moments, A desert full of horses, To the tree on foot, We lost darkness after awakening, This flower is brought by Gabriel 가 있다.

팩트체크와 마음가짐

언론이 팩트체크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는 것은 가치 있는 뉴스 생성이나 보도를 위한 핵심 요소다. 그 어느 때보다 가짜뉴스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요즘, 모든 언론은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팩트체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문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함께 포함된 뉴미디어 시대에는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콘텐츠가 초단위로 게시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일반인들은 '시민기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엔터테인먼트나 의외의 주제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게시한다.

■ 푸네 네다이

시민기자는 보통 팩트체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지만 민감한 주제를 공개하여 여론과 정부의 관심을 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플루언서를 이용하여 계획된 영역으로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다. 팩트체크라는 발상은 역사 전반에 걸쳐 권력 및 돈과 관련이 있었다.

올바른 뉴스를 생산하고 게시하는 정책은 언론 및 국민 그리고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필자는 팩트체크 위기가 정치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사회 및 인간사회의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어떤 언론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숨기려고 할 때, 그 뿌리에는 대중의 의식이라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필자의 글이 종종 철학 및 인류학에 가깝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팩트체크 위기의 근원을 살펴보면 탐욕이라는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인간은 권력과 돈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언론의 팩트체크 역사를 돌아켜보면, 욕망의 대상으로 여론을 이끌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다원주의 세계에 살고 있다. 올바른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각 언론의 자율규제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가짜뉴스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권력체계가 사람들이 맑은 정신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은 아직 요원하다.

언론인은 스스로 공개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발제자



프랭크 맥넬리

The Irish Times  
칼럼니스트  
아일랜드

프랭크 맥넬리는 The Irish Times의 기자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4차례 '아이리시맨의 일기'를 기고한다.

언어의 전쟁- The Irish Times, UN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할리우드 대본작가 윌리엄 골드만(William Goldman)은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와 칼 번스타인(Carl Bernstein)의 책을 원작으로 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All President's Men)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 딜레마에 부딪혔다.

1974년 당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이 이겼고, 미국 대통령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골드만은 어떻게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는 몇 주 고민한 후 답을 찾았다. 그의 말을 빌리면 책의 후반부를 버리는 것이었다.

대신 영화는 전반부인 언론인의 투쟁에 집중한다.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그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한 순간이 된다.

그 실수는 팩트체크의 혼동으로 인해 대통령 수석보좌관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 프랭크 맥널리

있는 인물인 하워드 할데만(Howard Haldeman)을 음모의 가담자로 조급하게 지명하면서 일어난다.

할데만은 실제로 유죄였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의 내부규정에 따라 적어도 두 개의 소스가 필요했고, 기자들에게는 하나밖에 없었다.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정부 내부자에게서 남은 하나를 얻으려는 열망으로 번스타인은 전화로 하나에서 열까지 세는 복잡한 비언어적 시스템을 고안했다. 소스가 그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는 사실임을 뜻했다.

하지만 정작 발신자가 애초 정한 것과 반대의 의미로 잘못 이해했다. 이에 그 기사는 진행되었고 소스는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백악관은 몇 달 간 방어적 태도를 취했고, 무모해 보이는 격렬한 반격을 신문에 가했다.

편집장은 기자들이 업무로 복귀하기 전 그들을 질책했고 다시는 일을 망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것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다.

조용한 뉴스룸을 배경으로 한 절제된 마지막 장면의 드라마는 화면 맨 아래에 타자기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후 언론인이 승리한 날짜와 헤드라인 “닉슨 대통령 사임”이 입력된다.

지금보다 무척이나 단순하던 1974년의 세상에도 팩트체크가 혼란스러웠다면, 모두가 기자가 되고, 진실의 여러 버전이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며, 정보전쟁이 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비쿼터스 소셜미디어 시대’인 오늘날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까?

지난 3월 필자의 동료인 <아일랜드타임즈>(Irish Times)의 유럽특파원 나오미 오리어리(Naomi O’Leary)는 새롭고 혼란스러운 현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즉 유엔 직원이 우크라이나 사건에 대해 “전쟁”이나 “침략” 대신 “분쟁”이나 “군사적 공세”라는 용어를 쓰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쓰면서 시작되었다.

기사 출처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유엔의 글로벌커뮤니케이션부서에서 보낸 이메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커져버렸다. 우크라이나가 보고서에 유감을

■ 프랭크 맥널리

표명하자 유엔은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유엔 공식 대변인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즉시 이 기사를 “가짜”라며 비난했다. 자칭 “최종의 인터넷 참조 출처”인 Snopes는 이에 동의하면서 “거짓”이라고 선언했다.

유명 언론인부터 이름없는 진실 자경단원에 이르기까지 소셜 미디어의 많은 사람들이 유엔의 신호를 받고 기사를 일축하거나 그녀에게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행하게도 그러한 지시를 강력히 부인한 사실에 고무된 다른 유엔 직원들이 그 기사를 뒷받침하는 많은 문서를 보내주었다.

이들 문서를 통해 해당 이메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표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상명하달식 압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신문의 동료인 그 특파원은 자신의 기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유엔 대변인은 결국 조금씩 말을 바꾸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썼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변인의 주도면밀한 부인에 근거하여 내 기사를 일축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자세히 들여보면 대변인은 ‘이메일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것에서 ‘그것이 (현재?) 공식방침’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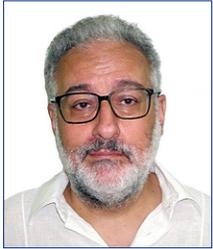
또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멋대로인 지역사무소의 개별 행동으로 축소했다.

최초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 그녀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Snopes는 이제 사건의 진실을 “혼합”이라고 선언했다.

최초 보도에서 말한 대로 유엔 글로벌커뮤니케이션부서가 실제로 직원들에게 “전쟁”이라는 단어를 피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하지만 유엔이 “하나의 실체로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궤변으로 들리지만,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용하는 단어로 언론인을 폄하하는 것보다 낫다. 보도를 “가짜”라고 비난한 유엔 대변인의 트윗은 이후 삭제됐다.

발제자



안토니오 모스카텔로

Askaneews  
기자  
이탈리아

안토니오 모스카텔로는 이탈리아 통신사 아스카뉴스의 기자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서 중군 기자로 일했으며 지금은 아스카뉴스에서 아시아 부문을 맡고있다.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그의 마지막 작품은 Megumi - Storie di rapimenti e spie della Corea del Nord (Megumi - kidnapping and spies from North Korea), Napoli, 2018; Forse non tutti sanno che in Giappone (Strange Things from Japan), Rome 2019; 101 cose da fare in Giappone una volta nella vita (101 Experiences to do in Japan Once in a Lifetime), Rome 2020 이다.

팩트체크, 자율규제 개념 및 이탈리아 자율규제 환경

지금 우리는 언론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2년간의 팬데믹 후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전쟁이 발발했다. 많은 언론인들이 목숨을 걸고 민간인과 함께 전쟁 지역에 있다. 그들은 그 전쟁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온전한 시각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필자는 2003~2005년 이라크에서 전쟁을 취재한 경험이 있는데 가끔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큰 배에 탔을 때 선실의 작은 창문으로 파노라마만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언론사 편집국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매일매일, 매시간 전쟁 지역의 수많은 정보원으로부터

안토니오 모스카텔로

유입되는 대량의 정보를 어떻게 팩트체크할 수 있을까? 독자들이 뉴스를 점점 더 빠르게 요청하는 시기에는 특히나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전쟁 상황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당국의 압력이 더 강해진다. 때때로 그것은 검열로 가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뉴스와 검열 사이에는 제3의 방법이 있다. 바로 언론인의 자율규제다.

언론자율규제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학습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언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 언론들은 편집 자율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자국 내 공공담론의 질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자율규제는 검열도 아니고 더욱이 자기검열도 아니다. 윤리, 정확성, 권리에 대한 좋은 원칙을 세우면서 무엇을 보고하고 어떻게 보고하고 어떤 의견을 표해야 할지에 대한 자유를 충분히 확보, 보전하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또한 언론이 온당한 불만사항에 대응하고, 오류 수정이 정당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것에 도움이 된다. 품질을 중시하는 언론인들은 대중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불만제기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좋다.

합리적인 자율규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1) 언론계에서는 언론인, 편집자, 소유자 모두가 책임 있는 언론을 만드는 매체는 대중과의 대화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공정한 자율규제는 언론계 전체와 사내에서 모두 설정될 수 있다.
- 2) 언론계 밖에서는 정치권과 공인(보통 불만사항의 주요 제기자)이 공유하는 시스템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기업, 노조, 종교 및 소수자단체, 오래되거나 신설된 이익집단, 그리고 일반 대중과 같은 시민사회의 주역은 그러한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규범을 촉진하여 민주적인 맥락에서 대중과의 협약 확립에 도움을 준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은 서로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

동시에, 자율규제는 언론인들의 독립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언론인의 오류는 권력자가 아니라 동료가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부가 언론 제재에 나서는 것을 줄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될

■ 안토니오 모스카텔로

수 있다. 게다가, 자율규제 상황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유리하다. 즉 비용 안 들이고 조속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언론자율규제는 한마디로 자유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다면 필자의 나라, 이탈리아의 상황은 어떤가?

이탈리아에는 언론의 윤리적 규범에 대한 통제를 법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있다. 1963년 출범한 전국언론인협회(National Order of Journalists)다. (파시스트 시대에는 1925년부터 전국언론인조합(National Guild of Journalists)이 있었다.) 또한 독립노조인 이탈리아 언론연맹(National Federation of the Italian Press)도 있다. 전국언론인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 언론인들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993년 이 두 기관은 언론법과 이탈리아 헌법을 새기면서 언론인 의무헌장을 채택했다.

헌장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정보 및 표현의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언론인의 권리다. 이는 법에 의해 제한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야 한다. 항상 충성과 선의로 정한 모든 의무를 따른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존중은 불변의 의무다. 모든 잘못된 뉴스는 정정되어야 하며, 오류도 수정되어야 한다. 언론인과 발행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출처 특성상 요구되는 경우 정보의 출처에 관한 직업적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동료들 간의 협력정신, 언론인과 발행인 간의 협력, 언론과 독자의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언론과 국민의 신뢰 관계는 모든 언론인의 기본 업무다. 이 관계를 촉진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이탈리아 언론 전문가들은 Carta dei Doveri dei giornalisti라고 불리는 윤리강령에 서명해야 한다. 다른 분야를 규제하는 헌장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헌장은 Carte di Treviso라 불린다.

전국언론인협회에는 규율위원회(Discipline Council)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발제자



카나트 아우예스베이

LLP (Media Holding)

정책관

카자흐스탄

카나트 아우예스베이는 카자흐스탄의 사회·정치 분야의 오랜 경력을 지닌 기자다.

카자흐스탄 Stopfake.kz 웹사이트의 허위정보 퇴치 사례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가짜, 트롤, 증오자, 소셜네트워크 상의 허위정보 관련 용어들이 카자흐스탄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선진 민주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가짜뉴스와 싸우기 위해 규범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계속해서 가짜뉴스에 맞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라는 형법 조항이 있다. 비상 시 가짜를 막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이 조항에 따라 당시 몇몇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카자흐스탄 형법엔 130조 '명예훼손'과 274조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있다. 두 조항 모두 가짜정보를 다루는데, 첫 번째 조항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이 실추되는 경우를, 두 번째 조항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조항은 벌금 2000달러 및 MCI 혹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게 돼있다. 또 중대범죄 관련 명예훼손은 벌금 3000달러 및 MCI 혹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돼있다. 카자흐 헌법 274조에 따르면 형벌에는 등급이 있다. 가장 엄중한 처벌은 전쟁이나 비상사태에 범죄집단이 가짜정보를 허위 유포할

■ 카나트 아우예스베이

경우 적용되는 7년의 징역형이다.

Stopfake.kz의 설립자인 Alexander Danilov는 “카자흐스탄의 허위정보 확산을 막고, 혼란과 오해를 줄이며, 독자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가짜뉴스가 어떻게 그리고 왜 생성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Stopfake 인터넷 포탈을 만들었다”고 했다.

사이트는 그동안 총 2000여건의 가짜정보를 찾아냈다. 이 사이트는 CVI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백신접종에 대한 가짜정보와 음모론 그리고 5G, 인터넷기술, 모바일통신에 관한 가짜정보를 찾아냈다. 올 1월에는 Kaznet에서 대량으로 유통 중이던 가짜정보를 찾아냈다.

여기 대부분 정보는 인터넷 사기와 피싱 사이트였다. 가짜정보를 적발하기 위해 Stopfake 팀은 90개 이상의 소셜네트워크, 메신저, 온라인, 기존 언론을 매일 모니터링한다.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오픈소스 검색 툴을 활용하고, 공식 출처(카자흐스탄 정부부처 대변인 등)에 데이터나 코멘트를 요청하고, 전문가 설명을 요청한다.

진위 확인을 위해 메시지의 출처와 작성자를 확인한다. 또한 정보의 진위와 변조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유포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다. Stopfake가 생성한 자료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지역 간행물과 카자흐스탄 주요언론과 인터넷에서 유포 및 인용된다. 이 사이트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Stopfake.kz는 콘텐츠 접근성과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사이트는 유사과학 이론을 구별하는 법(<https://stopfake.kz/ru/archives/1840>), 딥페이크 영상, 얼굴, 움직임, 목소리의 대체 방식(<https://stopfake.kz/ru/archives/1125>), 페이크가 무엇인지(<https://stopfake.kz/ru/archives/1119>), 가짜계정이 무엇이고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식별하는지(<https://stopfake.kz/ru/archives/1675>), 어떤 음모론이 존재하는지(<https://stopfake.kz/ru/archives/1315>), 소셜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가짜에 대해 중인지(<https://stopfake.kz/ru/archives/1191>), 어떻게 피싱 사이트를 식별하는 지와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https://stopfake.kz/ru/archives/2250>)에 관한 자료를 발행한다. 세계 각국의 입법부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에 어떤 식으로 대응 중인지에 대해서도 일련의 자료를 발행했다. Stopfake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테스트, 밈, 삽화 형식의 오락성

■ 카나트 아우예스베이

인지적 콘텐츠를 생성한다. 또한 CVI 백신에 관한 정보와 백신 연구결과가 포함된 전체 출처를 제공한다.

결론 및 권고사항

- 가짜정보에 좀더 체계적으로 대항하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층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가짜정보와 관련 현상이 범람하고 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
-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가짜정보에 대항할 방안을 주의 깊게 활용한다.
-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정보전쟁과 가짜정보 및 선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무장해제되고 있다.
- 따라서 언론인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명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팩트체크를 가르쳐야 한다.
- 언론인과 전체 국민들을 교육하는데 집중하고 이들이 사회와 시청자에게 진정으로 위협이 되는 가짜정보와 그리고 가짜가 트롤과 섞이는 지점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와 팩트체크 분야의 선진국 경험을 도입한다.
- 가짜와의 전쟁에 대형 테크기업과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의 힘을 활용한다.

발제자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  
센터장  
한국

정은령 박사는 2017년부터 SNU팩트체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2020년부터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independent board member를 맡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팩트체크와 미디어 신뢰도에 관한 논문을 써 왔으며, 팩트체크와 허위정보 역지, 저널리즘 교육 등을 연구해왔다. 동아일보에서 19년간 기자로 일했으며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각국 언론의 팩트체크 현황과 언론자율규제기구 운영

1990년대 이후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팩트체크는 정치인들의 말들을 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유권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정치인들의 말을 받아쓰기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취재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기자의 객관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했지만, 발언의 진실성 여부는 유권자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던져두는 것이었다.

기자들이 증거를 바탕으로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 발언의 진위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저널리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시작은 시민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정은령

정확한 정보를 전하려고 하는 저널리즘 혁신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미국의 뉴스룸들을 넘어서 전 세계로 번져 나갔다. 발칸반도와 구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하에 있었던 동구권 국가들에서는 비정부기구들을 중심으로 팩트체크의 제1목적은 정치개혁에 두는 개혁가(reformer) 모델이 실천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드러나듯이 러시아가 인근 국가들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퍼뜨리는 허위정보, 즉 hybrid threat에 맞서기 위한 팩트체크가 활발하다.

유럽지역에서는 스스로를 언론인으로도 사회운동가로도 규정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전문가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전문성을 살려 정치인들은 물론 언론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팩트체크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한국의 팩트체크는 미국과 유사한 뉴스룸 모델로서 언론이 주도하여 팩트체크를 확산해 왔다.

초창기 정치 팩트체크로 시작했던 팩트체크 운동은 이른바 탈진실시대에 들어서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허위정보는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최근의 허위정보는 4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웹사이트를 만들기 쉬워졌고, 허위정보를 게시한 뒤 광고수익을 통해 돈벌이를 하기도 쉬워졌다. 둘째, 소셜미디어는 허위정보를 확산시키기에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셋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넷째,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즉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허위정보는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극명하게 드러났다. 보건과 과학의 영역이 정치화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가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되었다. 세계 각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했다.

한국 언론은 2017년 제 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팩트체크를 본격적으로 해 오고 있다. 필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SNU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플랫폼을 마련하고 한국의 31개 언론사가 참여해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물론 사회 경제 과학 등

정은령

제반 분야에서 정확한 사실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공적 사안을 검증해 플랫폼에 게시한다. 2017년 3월부터 5년간 3700여건이 검증됐고, 이 중 62%가 사실 아님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해서는 31개 제휴언론사가 지난 2년간 520여건의 사실검증을 했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 허위정보의 출처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 저명인사들로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허위정보의 경우 유통되는 형태의 69%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퍼진 루머였으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도 22%였다. 일부 언론이 사실 여부 판단없이 해당 정보를 단순 인용 또는 기사화하면서 허위정보를 유통하고 확산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중지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을 허위조작정보 생산의 주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는 사회적 리트머스 시험지로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허위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 자유, 표현 자유 위축의 위험성이 있다. 법의 집행 주체가 언론의 감시대상인 권력이기에 언론자유 위축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디어에 대해 요구와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을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귀책성(liability)을 묻는 모델보다는 답책성(answerability)을 기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민과 대화하고, 언론의 문제를 스스로 교정해나가도록 하는 자율규제 모델이 바람직하다.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언론의 품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속도경쟁, 선정성 경쟁을 하면서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정보를 확산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보도를 언론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 언론의 상호검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자율규제기구가 개입해야 한다. 지난해 말 한국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방안에 따르면 자율규제기구의 핵심적인 역할은 자율조정인 즉 ombudsperson이 자체 모니터링한 내용과 이용자들의 불만, 피해 신고를 토대로 개별 언론사에 신속하게 접근해 수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EU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양질의 저널리즘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허위정보가

정은령

상시적으로 생산되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자율규제를 통한 언론 품질 향상, 이를 통해 언론이 믿을 수 있을만한 레퍼런스로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것이 맞물려야 할 것이다.

발제자



안형준

MBC  
기자  
한국

안형준 기자는 1994년 YTN 입사, 2000년 말 MBC 보도국에 입사하였다. 2001년 9.11테러 현장취재를 했으며, 2003년 이라크전쟁 현장취재를 하였다. 2018년, 2019년에는 방송기자연합회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소설 <딤뉴스>가 있다.

한국의 팩트체크 현황과 언론자율규제기구

1) ~2016

공영방송 등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 팩트체크팀 (embedded factcheck team) 운영

2) 2017년, 팩트체크 전문매체 \* 플랫폼 출범

2016년 가을부터 서울에서 대통령 퇴진운동인 '촛불혁명'이 진행됐다. 이 과정 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수요가 증가했다.

2017년 3월 서울국립대학교(SNU) 팩트체크센터와 뉴스톱(NEWSTOF) 두 단체가 탄생했다. 뉴스톱은 'NEWS TRUE OR FALSE?' 에서 따온 말이다.

SNU팩트체크센터는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 관련 기사를 모아서 올리고 평가하는 '팩트체크 포털 사이트'를 표방했다. 15개 언론사와 협력해 2017년 3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서울대

안형준

언론정보학과 소속인, 이 곳은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았다.

팩트체크 전문 매체를 표방하며 같은 해 6월 공식 출범한 뉴스톱은 직접 팩트 체크를 했다. 기자와 피디 출신 저널리스트 4명이 모여 오프라인에서 풀타임 상근을 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약 50명이 자문위원이 온라인으로 활동했다. 관심 뉴스들을 선정해 매주 2~3개의 팩트체크 결과물을 올렸다. 이후 신뢰를 얻으면서, 대통령 공약 실행 팩트체크 등 큰 규모의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3) 2018년, 시민참여 팩트체킹 콘테스트

세계 최초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팩트체킹 공모전이 시작됐다.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도했다.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일반 시민, 종교교생 수 백 명이 참가 했다. 2019년 제2회 대회 대상 수상팀은, 같은 해 겨울 싱가포르에서 열린 구글 서밋에 참가해 팩트체크 과정과 성과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4) 2020년, 팩트체크넷 출범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팩트체크넷'을 출범시켰다. 팩트체크 교육 과정을 마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시민팩트체커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웹사이트 오픈 1년여 만에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팩트체크넷을 이용했다. 또 방송 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실행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두 단체의 정부 예산 지원은 최근 삭감됐다.

5) 언론사 소속 팩트체크팀 활성화 & 한계

또 같은 해인 2020년 한국의 방송사인 JTBC 뉴스룸이,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IFCN: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회원이 되기도 했다.

JTBC 외에도 언론사별로도 팩트체크 전문팀이 운영중이다. 한겨레신문 등 주요 종합일간지와 공중파 3사, 그리고 24시간 뉴스전문채널 YTN 등 약 30개 매체에서 팩트체크팀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팩트체크 전문단체와 언론사별 팩트체크팀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안형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선택편향(selection bias)' 논란 속에 비판과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한 'SNU팩트체크센터'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직후 특정 정당에서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6) 2021~현재 언론자율규제기구 추진중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 2021년 '통합형 언론 자율 규제기구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영리를 추구 하지 않는 사단법인 형태이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규약을 준수하면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적기구인 언론진흥 재단의 재원 투입도 이뤄져야 한다.

핵심은 자율규제위원회이다. 외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5~7명의 자율조정인(ombudsperson)들이 뉴스와 기사를 모니터링한다. 또 이용자 불만과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자율조정인을 지원하는팀과 모니터링팀이 별도로 운영된다.

중대한 규약 위반에는 제재금이 부과된다. 제재금 외에 권고, 주의, 경고 조치도 내려진다. 기사 정정과 노출중단, 사과 등의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일정 벌점을 넘어서 언론사를 제명할 수도 있다. 반면 규약을 준수한 언론사는 분담금을 감면한다.

발제자



쿠반 타발디예프

Kabar News Agency  
편집총국장  
키르기스스탄

쿠반 타발디예프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30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키르기스스탄 Kabar통신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이 기관은 키르기스스탄과 중앙아시아 전역에 대한 정보를 6개 언어로 배포하며 정치, 사회 경제적 주제, 인터뷰,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비디오에 대한 자료를 게시한다. 쿠반 타발디예프는 언론학 박사로서 키르기스스탄의 여러 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국제 언론에 여러 분석 자료를 발표한 경험도 있다.

가짜정보가 판치는 세상의 출현과 대책

우리는 언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히 커지고 있음을 목도 중이다. 최근의 사건들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 지금까지 정치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왔다.

다시 말해 정치가 주었고, 정보자원은 주어진 방향을 따랐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 정책을 위한 특정 결과를 도출하는데 아주 쉬운 도구였다. 그러나 '인터넷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 흐름이 정치를 추월할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날조하여 퍼뜨리기 시작했다. 21세기

■ 쿠반 타발디에프

들어 인터넷이 글로벌 커뮤니티 내 삶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시대는 10여년 지속되었으며, 그 동안 정보기술은 소셜네트워크가 출현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다양한 플랫폼들은 무제한으로 성장 중이다.

우리 모두는 페이스북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운 정보사회를 선도한 것을 기억한다. 처음에 모두가 이 플랫폼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페이스북은 가장 중요한 SNS 플랫폼 중의 하나가 되었다.

페이스북 회원은 다양한 뉴스와 기사 그리고 그에 관한 견해와 해석을 입수하고 유포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 독자를 늘릴 수 있는 그룹 생성 기능이 도입되면서 이 플랫폼의 정보 흐름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심사를 같이 하는 수많은 그룹이 생성되었다.

페이스북 그룹이 다양한 수준의 국가적인 선거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한 득표활동을 주축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2020년 키르기스스탄 선거가 이를 잘 증명한다.

곧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춘 유사 플랫폼이 등장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많은 자체 웹 플랫폼을 출시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신규 정보공유 플랫폼은 수많은 청년들이 사용하는 틱톡이다. IT기술의 새 가능성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좀더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을 도출해 낼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보의 진위를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가짜뉴스가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 가짜뉴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유포자가 자신이 퍼뜨리는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다. 따라서 웹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배양이 시급해졌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 쿠반 타발디에프

두번째 유형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허위정보가 전 세계 대중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날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다.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주된 이유는 웹2.0 플랫폼이 무제한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는 플랫폼 소유자가 플랫폼 참여자들을 일정 수준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이미 정치와 깊게 관련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건들은 이를 분명하게 입증한다.

불행히도 기존 언론이 대중과 정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결론지어도 될 것 같다. 기존의 언론기관도 점점 더 소셜네트워크로 이동 중이며, 정보를 무제한으로 전파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합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은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인기가 없으면 대중은 떠나가게 된다. 독자는 선정적인 기사와 스캔들을 찾는다. 이는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셜네트워크의 인기를 높인다.

이제 대중, 특히 청년세대에게 언론의 전통적 가치를 교육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허위정보가 판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상식이 있는 사회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제자



**출론바토르 돌고르**

아시아기자협회 몽골지부  
회장  
몽골

출론바토르 돌고르는 몽골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작가, 언어학자, 작곡가로 1987년 당시 유일한 채널인 몽골 국영 텔레비전에서 기자로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많은 프로그램과 함께 공산주의 아래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중적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 몽골 저널리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저널리즘의 원칙에 대해 저널리즘 학교에서 강의한 바가 있다. 그의 방대한 경험에는 두 개의 일간지 "Mongolian News"와 "Ulaanbaatar Times"의 편집장으로 일한 것이며 몽골기자연맹 사무총장, Mongolia Nambariin Enkhbayar의 회장으로 자리했다. 그는 문학 단체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고 북극성 훈장과 수흐바토르 훈장을 포함하여 몽골 정부에서 수여했다. 2009년에는 몽골 대통령 선언으로 권위 있는 국가 표창인 "명예로운 문화인"을 수상한 바가 있다.

**언론자유 축소와 팩트체커의 부상**

우리는 최근 몇년간 전 세계 언론자유가 악화되는 상황을 목도했다. 각종 민주주의 연구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인구의 약 85%가 언론자유 축소를 경험했다고 한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러한 언론자유 하향곡선이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모두에서 발생 중임을 파악했다. 이는 유라시아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출론바토르 돌고르**

현재 많은 나라들이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 때문에 언론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주요 인터넷 플랫폼에 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들이 흔히 언론자유 침해의 변명으로 악용되었다. 시청자와 수익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신문사의 광고수익은 반으로 줄어든 반면, 구글과 메타는 현재 글로벌 디지털 광고 지출의 약 절반을 벌어들이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기자의 안전이 여전히 위태롭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언론인을 감시하고, 제한하고, 심지어 감금한다. 지난 5년간 언론과 취재원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 언론자유와 언론발전에 관한 보고서와 연구의 주요 결과이다.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사실이고 그 자체로 위협이 되지만, 언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험하게 만든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102개 이상의 국가에서 독립 팩트체커들이 생겨났다. Duke Reporter's Lab에 따르면, 현재 341개의 팩트체커 그룹이 운영 중이다.

허위정보가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의 대선이 있던 2016년에 팩트체커가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주요 테크기업들은 팩트체커를 우선순위로 삼고 기존 및 신규 팩트체커 기관에 보조금, 운영자금,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오늘날 팩트체커들은 정치적 주장의 정확성과 정직성을 검증함으로써 오보와 허위정보를 식별하여 보도하고자 한다. 이는 언론인이 생성한 콘텐츠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 수단으로 뉴스룸에서 수행하던 기존의 절차와 대비되는 점이다.

최소 절반 이상의 팩트체커는 학계나 비영리기관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독립조직이다. 이들은 주류 언론이나 기존의 언론조직과 별개의 조직이다.

몽골에는 Fact Check Mongolia와 Live.tv 이렇게 2개의 팩트체커가 활동 중이다.

Fact Check Mongolia는 울란바토르 소재 독립 비영리기관이며,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 몽골뉴스언론위원회(Mongolian News Media Council), UNICEF의 지원을

출론바토르 돌고르

받는다. Live.tv 또한 기자들이 운영하는 독립 조직이다.

전 세계 독립 팩트체커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언론과 독립 팩트체커들과의 관계가 경색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언론은 팩트체크가 수행되는 방식과 팩트체커의 언급 후 소셜미디어에서 정보가 삭제되는 방식에 대해 많은 불만과 반대를 제기하였다.

언론사는 팩트체크가 검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지만, 팩트체크는 언론인과 편집자가 페이스북에 대한 접근성 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과 뉴스 인지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자체검열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다.

언론사와 독립 팩트체커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제 여러 국가에서 팩트체커는 언론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팩트체커가 언론인과 동일한 윤리기준을 적용 받게 되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언론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토록 된다.

유네스코도 팩트체커가 언론규범과 직업규범뿐만 아니라 언론자율규제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언론과 언론위원회를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수의 팩트체커들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과 같은 자체 윤리강령을 두고 있지만, 팩트체커들이 국가 차원에서 기존 언론자율규제 메커니즘을 준수할 경우 언론과 팩트체커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분쟁 해결이 촉진될 것이라는 보도들이 있다.

연구 결과, 시청자는 언론의 철저한 검토를 선호한다. 보도기관들은 매일 쏟아지는 오보와 허위정보와 싸우기 위해 전담 팩트체크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발제자



비시누 고탐

Rising Nepal  
편집장  
네팔

비시누 고탐은 현재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영어 일간지인 라이징 네팔(Rising Nepal)의 수석 기자이며, 아시아기자협회(AJA-Nepal) 네팔지부의 사무총장이다. 영국 일간지에서 26년 동안 활동적인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네팔에서 영화 평론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얻기도 하였다. 주로 네팔 문화, 영화, 등산에 관한 글을 쓰며 그 외에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글을 쓰고 있다. 그는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대학교에서 영문학 및 네팔 역사 및 문화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법학 학사 학위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네팔 문화와 정치 그리고 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네팔의 팩트체크의 현황

언론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 오염되었다. 그리고 오염된 뉴스와 정보의 소비는 독자, 사회, 기관, 민주주의, 정치인의 건강에 해롭다. 오염된 정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보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액세스가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간 오염된 뉴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및 악의적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 비시누 고탐

다수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읽거나 듣는 것 모두를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정보를 구별하지 못 한다. 가짜뉴스는 2000년 1월 카트만두에서 발생한 것처럼 폭력사태로 번지기도 한다.

인도 영화배우 Rhitik Roshan의 네팔인에 대한 언급에 대해 거짓뉴스가 퍼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거짓뉴스에서 촉발된 폭동으로 카트만두에서 4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달러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최초의 쓰라린 경험이었다.

그 당시 네팔에는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관행이 아예 없었고, 거짓뉴스를 읽거나 들은 사람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었다. 네팔의 경우 지금은 기관 두곳에서 신문·잡지 등 활자매체와 인터넷 매체는 물론 소셜 사이트에 떠도는 뉴스와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이 팩트체크 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면 읽은 뉴스 기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2015년 처음으로 'South Asia Check'가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시작했다. 두번째 기관인 'Nepal Fact Check'는 2019년 3월 편집자와 연구원 2명으로 출범했다.

두 기관 모두 언론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신문·온라인미디어·소셜미디어를 통하거나, 라디오·TV 영상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독자들에게 바로 알리고 있다.

Nepal Fact Check는 설립 15개월만인 2021년 6월까지 700만건이 넘는 사실을 확인했고, "정보의 67%가 가짜이고 21%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수치는 가짜뉴스나 거짓뉴스가 네팔에서 얼마나 흔히 게시, 유포되는지 보여준다.

사람들이 읽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결국 믿고 공유 하면서 거짓뉴스의 확산을 돕게 되는 것이다.

네팔에서는 대부분의 잘못된 정보는 비디오 공유를 통해 확산된다. 정치적 이념과 음모론이 거짓뉴스 생산에 기여한다.

South Asia Check 2021년은 당시 집권당인 CPN-UML 간부들이 정치집회 사진에 인도 국기를 삽입한 방법을 공개했다. 이 집회는 당시 총리 KP Sharma Oli의 하원 해산에 저항하기 위해 정당의 라이벌 파벌이 조직한 것이었다.

■ 비시누 고탐

지역언론은 콘텐츠가 부족하면 그런 거짓정보를 이용하고, 라이벌을 이기려는 당원들이 이를 퍼뜨린다.

네팔 정부가 올해 2월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를 승인하면서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급속히 퍼졌다. 진실과 거짓뉴스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사시스템과 인적,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도국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거짓뉴스가 계속 퍼지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발제자



케샤브 프라사드 푸델

New Spotlight  
편집자  
네팔

케샤브 프라사드 푸델은 현재 네팔의 뉴 스포트라이트 전국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Tribhuvan University 네팔 전문 저널리즘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푸델은 캘리포니아대에서 미디어 펠로우십을 수료했다. 28년 전, 저널리즘을 시작한 푸델은 국제관계와 관련 된 다양한 이슈에서 일했다. 그는 다양한 국제 세미나 및 워크샵에 참석한 이력도 있다.

허위정보, 팩트체크 및 언론인의 도전

팩트체크는 뉴스 작성 규범의 기초다. 뉴스 편집자와 언론사는 초창기부터 팩트체크와 재확인 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 언론사는 인쇄 또는 방송 전 거쳐야하는 단계가 있었다. 원고 편집자에서 교정자,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팩트체크와 맞춤법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소셜미디어가 급증하고 영향력과 도달 범위가 커지는 이 시대에 언론인들은 팩트체크에 다양한 기술 및 전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옐로 저널리즘의 초기에 비해 현재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더욱 파괴적이다.

소셜미디어 출현은 전 세계 언론인과 미디어 사용시간에 득인 동시에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미디어는 뉴스, 비디오 및 이미지의 도달 범위를 확장시켰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글, 비디오 및 이미지는 수백만 명의 청중과 독자에게 도달이

케샤브 프라사드 푸델

가능하다. 소셜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수백만 개의 가짜뉴스도 섞여 있다. 적절하게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언론인들은 논란에 휩싸이고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지역별 언론자유규제기관이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 Without Border)와 같은 비영리 국제기구를 비롯해 뉴스랩(Newslab), 신문사 및 대학이 팩트체크 도구를 제공하고 언론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자연맹, Reporter Club 또는 Editors Guild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은 언론이 공정하고 윤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동규칙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법적 책임을 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언론위원회 또는 의회가 통제하는 언론규제위원회와 같이 정부 소속 기구가 언론인을 적극 가이드한다.

네팔언론위원회(Nepal Press Council)와 같은 반자율적인 기관과 네팔기자연맹(Federation of Nepalese Journalists)과 같은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언론인들의 팩트체크를 지원하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네팔 역시 언론이 소셜미디어에 뉴스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과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새로운 법과 규정에 따라 언론인은 가짜뉴스를 공유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막대한 벌금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팩트체크는 전통적으로 언론인이 생산한 콘텐츠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 관리 일환으로서 뉴스로 내어서 수행되는 업무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소셜미디어가 출현하고 공개 토론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팩트체크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정보의 진실성과 관련된 책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의 중심이 되었다. 반면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팩트체커의 수가 증가하면서 언론 매체와의 관계는 약해졌다.

다른 기관과 함께 유네스코는 네팔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언론 및 언론위원회를 지원 하여 팩트체커가 언론의 자율규제와 언론적,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Fact-Checking Network) 등 여러 팩트체커가 자체 윤리강령과 관행을

## ■ 케샤브 프라사드 푸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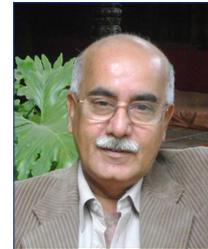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기존 언론의 자율규제 메커니즘을 고수하는 것이 언론과 팩트체커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언론위원회에서 팩트체커를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팩트체커에게 언론과 동일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 분쟁 발생 시 언론위원회가 불만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인과 언론 매체는 가짜뉴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많은 장치가 고안되고 팩트체크 장치가 기능하고 있지만 딥페이크는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교한 위조로 인해 언론의 확인은 더욱 어려워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최근 우리는 팩트체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자율규제를 위한 언론조직의 출현을 목격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정체될 것인지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뉴스룸은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 기관과 협력하며 언론인에게 새로운 도구의 활용 방법을 교육하여 확산되는 가짜뉴스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 발제자



### 나시르 아이자즈

Sindh Courier  
편집장  
파키스탄

나시르 아메드 메몬 아이자즈는 필명 나시르 아이자즈로 활동 중이며, 파키스탄 신드 주의 주도인 카라치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 10개국 국제회의에 참석했으며 15년 동안 파키스탄 전역에서 언론인을 위한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 정보 필터링-현대사회의 필수요소

오늘 우리는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2022 세계기자대회를 위해 JAK가 선정한 주제는 중요할 뿐 아니라 매우 흥미롭다.

진실되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데 있어 팩트체크와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규제가 언론의 기본이지만, 이는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져 오늘도 우리는 이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아마 모든 시민이 보유한 강력한 무기인 소셜미디어의 출현으로 문제가 복잡해져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탓일 것이다.

인터넷은 전 세계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교환하게 해주는 복잡한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용자를 포함하는 전 세계 약 25억 명 인구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 나시르 아이자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출현하기 전에는 신문사와 전자언론기관이 팩트체크 시스템을 운영했다. 신문과 전자언론이 '정보로의 관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자가 제출한 보도는 발행 또는 방송되기 전에 철저히 검토되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이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정보들이 아무 제약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무방비 관문'이 되고 말았다. 아무도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언론인은 많은 경우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한다.

디지털화 덕분에 정보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데이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입법을 통한 제약은 의사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이 지금 파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언론규제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논란 투성이의 이 법률은 신문, 방송, 소셜미디어를 포함하는 모든 언론을 하나의 규제기관 관할 하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사주와 언론단체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이 법률이 '가혹'하고 '위험적'이므로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이 법률은 언론인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사실 디지털화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윤리의 속성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화시켰다.

뉴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하도록 격려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뉴스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독립 언론이 필요하다.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작가 알리왈트(A. D. Aliwat)가 언급한 대로 "모든 정보는 무죄로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간주"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언론지형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기존의 규제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많은 경우 기존의 룰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으며, 정부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토론이 진행 중이다. 아직도 인터넷상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합의된 공통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자율규제가 언론의 독립성을 보존하고 언론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자율규제는 검열 또는 자율검열이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밝히려 한다.

■ 나시르 아이자즈

자율규제는 윤리나 정확성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므로 보도 대상이나 표현에 관한 편집자유는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언론은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가치와 윤리의 틀을 준수하며, 언론윤리강령이 제시하는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언론은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이를 면밀히 조사한 사람들에게 의해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지는 것을 종종 목격해왔다. 자율규제는 독자들의 있을 수 있는 항의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선행된 실수를 수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자율규제 기준을 홍보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자율규제는 언론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언론인이 직업적인 실수에 대해 권력기관이 아닌 동료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법률은 정부 정보를 온전히 열람 가능하게 하고 탐사기사의 정보원을 공개하라는 압력 행사를 막아야 한다. 법률은 등록이나 면허와 같은 언론의 행정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율규제 언론은 언론이 자율규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게 해준다.

정부는 국가의 언론 소유에 반대하고, 정부가 언론에 개입할 수 없도록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언론을 단일 규제기관 하에 두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좋은 법률도, 윤리도 언론에 대한 대중의 만족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자율규제를 통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태도를 재점검하는 것이다.

발제자



고레시 케네스

South Pacific Post  
정치부 편집위원  
파푸아뉴기니

고레시 케네스는 South Pacific Post Limited의 선임 기자로 (2000년 1월 - 현재, 22년 4개월), 정치, 수사, 비즈니스, 홍보 및 총괄 업무를 맡고있다. 그는 부겐빌 지역 Bougainville Post Courier(2009년 3월 - 2011년 8월, 2년 6개월)의 사무국장이었으며 뉴스, 마케팅 및 유통 부문에서 근무했다.

**팩트체크는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1,000개의 부족과 850개의 언어 그리고 2개의 공용어가 있는 나라, 파푸아뉴기니는 매우 흥미로운 나라이다.

파푸아뉴기니에는 2개의 일간지, 4개의 TV 방송국, 4개의 라디오방송국, 2개의 주간지 그리고 4개의 온라인 방송국이 있으며 모두 영어로 운영된다. 이들 언론은 언론자유규제를 조직의 재량에 맡긴다.

이 중 3개만이 정부 소유인데, 이 중 2개 신문사는 민간 소유도 인정한다. 필자가 일하는 신문사는 주주가 있다.

태평양에 있는 우리나라는 1천만 인구 중 80%가 농촌지역에 살고, 20%만이 도시에

고레시 케네스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검열 없이 대중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매체 기술이 보편화되기가 녹록하지 않다.

**글로벌 언론의 팩트체크**

파푸아뉴기니는 이제 세계에서 글로벌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특히 주류 언론의 경우 팩트 체크가 더 쉬워졌지만,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수백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대중들에게 새로운 매체 기술에 대한 글로벌 규제는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여준다. 우리 언론인의 경우에는 편집 관련 판단을 전적으로 팩트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 내린다.

정부가 수년 동안 주류 언론을 통제하고 검박하였음에도 우리는 정치나 집단, 혹은 상업적 이익이 우리의 편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언론자유규제조직 운영**

필자가 일하는 회사를 포함한 파푸아뉴기니의 모든 조직은 언론의 제작과 소비를 규제하는 언론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언론법은 다양한 언론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들을 포함하며, TV방송국, 인터넷, 신문 등의 다양한 형태의 언론에 적용된다.

파푸아뉴기니 언론위원회(Media Council)의 언론윤리는 보편적인 생명 존중과 법치 및 적법성 등의 가치를 촉진하고 수호한다. 언론윤리는 언론이 시민이 제공하는 글과 사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정의하고 다룬다.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소셜미디어상의 가짜뉴스이며, 주류언론이 가끔 이를 믿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일하는 회사는 글로벌신문사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소셜미디어도 자신들의 플랫폼에 허위정보가 투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인 팩트체커를 더 많이 활용하는 추세이다.

필자의 회사는 팩트체크 부서를 두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들이 양질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회사 내에 표준 작업지침이 있다. 팩트체커가 언론인이 한 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

## 고레시 케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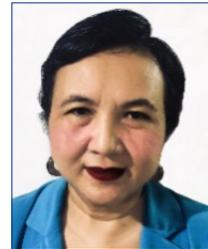
이들과 기존의 언론과의 관계는 불편해진다.

지금까지 팩트체크는 언론인이 생성한 콘텐츠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 차원으로 뉴스룸 내에서 언론인이 수행하는 일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소셜미디어가 도래하고, 공론의 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조직들도 팩트체크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팩트체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과 언론과의 관계는 느슨해졌고, 파푸아뉴기니 또한 예외가 아니다.

## 발제자



### 로잘린 갈가네라

아시아기자협회  
특파원  
필리핀

로잘린 갈가네라는 탐사보도와 TV/라디오 방송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있다. 그는 1997년 기자로 시작한 공공 서비스 라디오 프로그램인 Isumbong Mo Kay Tulfo (IMKT)에서 현재 수석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90년대 후반 IMTK의 TV 프로그램 특파원이었고 2021년에 방송 된 2개 프로그램의 총괄 프로듀서였다. 또한 필리핀에서 인기있는 타블로이드 일간지인 Remate에 주간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필리핀 문화, 정치 및 기타 지정된 주제에 대해 AsiaN Magazine에 기고하고있다. 그는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에서 학위를 받고 현재 결혼해 두명의 아들을 두고있다.

##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

팩트체크가 왜 중요한지, 언론이 자율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답한 후 지난 몇달간 필자가 접한 몇 가지 팩트체크 이니셔티브에 대해 공유하려 한다. 그 다음 소셜미디어 팩트체크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필리핀 언론인으로서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첫째, 팩트체크는 왜 중요한가? 현직 언론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관성 유지라고 생각한다. 언론인은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로잘린 갈가네라

방송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진실에 부합해야 하며,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순수 뉴스 기사를 쓰는, 특집 기사를 쓰는, 논평을 쓰는 그 내용은 사실이어야 한다. 상상 속의 허구여서는 절대 안 된다. 논평일지라도 허구의 데이터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

우리는 미국신문편집인협회(American Press Institute)에서 제시한 언론의 기본요소로 회귀해야 한다. 언론인의 주요 의무는 진실에 대한 것이며, 검증의 원칙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언론인이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작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정보 판별 취약층에게는 치명적이며 심지어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언론이 자율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도 3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간인 까닭에 우리는 완전한 사실이나 완벽한 그림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인간으로서 타고난 한계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것을 보거나 들을 수도 없다. 아무리 열심히 조사하고 검증하더라도,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간과할 수 있다.

개별 언론인이자 기자로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편견과 주관에 이용해 정보를 얻는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교육기관에서 배우거나 가족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눈으로 본 것과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작성한 것이나 보도하는 것이 항상 객관적이며 공정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무엇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때때로 언론사 사주가 우리의 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위의 세번째 이유가 자율규제와 관련해 중요하다. 언론사가 어떤 형태의 수입이나 이익을 얻어야 존속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책임감 있는 언론인으로서 기업 이윤 추구가 콘텐츠 생산의 주요 동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언론인은 언론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가(정부) 또는 기업의 규정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언론사에는 견실한 조직과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익이 편집과정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로잘린 갈가네라

지난 몇달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필자는 두 가지 국제 팩트체크 이니셔티브를 접했다.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FCN)와 신뢰성연합(Credibility Coalition)이 바로 그것이다. 네트워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아래 온라인 콘텐츠 링크를 공유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IFCN - <https://www.poynter.org/ifcn/>

Credibility Coalition - <https://credibilitycoalition.org>

이제 소셜미디어 팩트체크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주류언론과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처음부터 분산 생산되었다. 중앙 부처나 뉴스데스크는 기사와 비디오를 작성하거나 제작하지 않는다. 카메라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 때 물리적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단지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면 족하다.

또한 언론과 달리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편집자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무엇이 정확인지, 또는 어떤 것이 검증 가능한 사실인지 조언할 수 있는 섹션 편집자나 총괄 프로듀서가 없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는 콘텐츠의 사실 부합성보다 조회수나 “좋아요” 수에 따라 돈을 받는다. 따라서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좋아요, 구독 또는 공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 필리핀 언론인으로서 필자의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해 보겠다. 소셜미디어 세계가 필자의 글쓰기 및 라디오 경력을 능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기술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

필자는 여러 Facebook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개인용, 다른 하나는 직업상 네트워크용, 마지막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의 공개 플랫폼용이다. 유튜브와 트위터, 인스타그램 계정도 따로 있지만 젊은 기자들과 SNS 스태프들이 직접 관리한다.

팩트체크라는 측면에서는 현지 팩트체크 그룹에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경험은 없지만, 그러한 그룹이 팩트체크 기술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 과정 및 자료를 기자 및 언론 실무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로잘린 갈가네라

필자의 평생 좌우명은 "사실로 향해 가는데 지름길은 없다"는 말이다.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언제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사실과 진실에 가깝다고 확신할 때까지 증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는 기자들에게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공론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발제자



레오니디오 페레이라

Diario de Noticias  
부편집장  
포르투갈

레오니디오 페레이라는 1971년 리스본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인 세투발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세투발에서 공부했으며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기 위해 리스본 대학으로 옮겼다. 그는 또한 미국 연구 석사와 역사 박사 학위를 수료하였다. 현재 그는 두 명의 자녀(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고 1992년부터 데일리뉴스에서 근무중이다. 현재 그는 1864년에 창간된 데일리뉴스의 부편집장이다. 기자로서 그의 전문 분야는 국제 정치이지만 경제, 환경, 문화 및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 그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와 불어를 할 수 있으며 여행하고 다른 문화를 아는 것을 즐긴다. 그는 2014년과 2015년에 기자로 한국을 방문했고 2017년에는 가족과 함께 방문한 경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포르투갈의 가짜뉴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최근 몇 주 동안 포르투갈의 주요 뉴스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가 발표되고, 대표팀이 카타르월드컵 출전권을 따내던 때는 동유럽의 전쟁 뉴스만으로는 포르투갈 신문 1면을 채울 수 없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제적 사건에 대한 포르투갈 독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이번 분쟁이 NATO 회원국인 포르투갈과 같은

레오니디오 페레이라

대륙에서 발생했으며, 러시아의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포르투갈의 우크라이나 이민자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들은 정직, 근면하며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명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사회와 잘 융합되어 있다.

주요 포르투갈 언론은 만성적인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특파원을 파견했다. 포르투갈은 인구 1000만명으로 국내 시장은 매우 협소하지만 포르투갈어는 2억7천만명이 사용하고 있어, 그 잠재력은 아직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Di rio de Not cias> 신문의 경우, Lviv, Kiev 및 Odessa 지역에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를 각각 1명씩 파견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으로도 기자 1명을 특파했다.

이와 함께 폴란드에서 취재하던 일부 기자들은 포르투갈로 돌아와 리스본(Lisbon)과 포르투(Porto) 및 기타 도시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동행 취재했다.

그러나 주요 분쟁에서 항상 발생하듯이 우리가 보도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AP, AFP 및 Reuters 그리고 러시아의 TASS 같은 국제통신사를 비롯한 미국 CNN, 영국 BBC 등의 방송사와 미국의 주요신문을 통해 얻은 입수된 것들이다.

비교적 평판이 좋은 이들 매체에 의존하는 덕분에 오류나 허위기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이들 매체에서 여과장치가 오작동해 가짜가 진실로 둔갑한 정보에 대해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정보를 국제통신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활자와 디지털 매체 모두 이미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일도 벌어졌다.

예를 들어 Serpent섬에서 전사했다는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사실은 러시아 해군에 항복하여 전쟁포로로 크림기지에 끌려간 것으로 이후 밝혀졌고, 젤렌스키 대통령(Volodymyr Zelensky)이 Kiev에서 탈출했다는 뉴스는 한참 뒤에 대통령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수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실제 전투장면이라고 배포되는 컴퓨터 게임 영상에서부터 시리아 등 다른 분쟁지역의 영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것으로 보도되는 것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레오니디오 페레이라

일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무심코 공유한다. 독자나 시청자 확보의 압박을 받는 기존 매체는 소셜 네트워크에 유포되는 이러한 모호한 이미지를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변명과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매체 이미지에 해악이 된다.

이 문제는 1864년 입헌군주제 기간에 창간된 후 1910년 공화국 수립, 1926년 군사독재 수립, 1974년 민주주의를 가져온 혁명을 속보로 보도하는 등 포르투갈의 4개의 다른 정치체제를 거치면서 150년 이상 존재한 <Di rio de Not cias>와 같은 신문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짜뉴스와 싸우는 데 전념하는 포르투갈 및 국제단체가 몇 개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대응에서도 이미 역량 부족을 드러내고 말았으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는 말할 나위 없다.

허위정보는 양측의 전투 전략으로도 실행되고 있는 것 또한 언론으로서 팩트체크가 어려운 대목이다. 언론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편집국 역량이 절대 필요하다.

지금의 언론 위기로 언론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상적인 속도로 수행되는 종이신문이 반응속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판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켜내기가 더 쉽다.

필자가 근무하는 신문처럼 150년 이상 존속한 신문의 경우 이러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1864년 창간 이래 우리는 위대한 언론의 일부가 되었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신뢰성의 이미지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제1규칙은 소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후에만 취재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신뢰성을 달성하는 데는 수십 년 걸리지만, 보도한 뉴스에서 오류나 거짓정보가 발견될 경우 단 몇 초 안에도 독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



**티무르 샤피르**

러시아 연합 기자협회  
사무국장  
러시아

그는 러시아 언론노조 국제부 부장으로 2013년 제10차 러시아 언론노조 회의에서 러시아 언론노조 간사로 선출되었다. 2019년에는 국제기자연맹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여년의 전문 국제언론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중앙 러시아언론에서 언론과 정치과학 주제 관련 전문가 및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팩토이드 디지털 시대’에 팩트체킹의 중요성**

현대 디지털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시대는 ‘팩토이드(factoid)’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된다. 이 용어가 갖는 의미들 중의 하나는 언론에 게재되고 대중이 라이브로 반응하는 가공의 팩트이다. 팩토이드가 세상과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언론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유포하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모바일앱이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는 팩트체크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제 정보는 넘쳐나고 있으니, 언론은 이를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반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 대부분 언어의 능동 어휘가 된 팩트체크라는 용어는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원리, 접근법, 기법을 의미한다. 언론에 게재되는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절차는 오랫동안

티무르 샤피르

기존 언론이 해온 일이다.

팩트체크는 20세기 전반에 나타나 1930년대에는 개별 직업으로 성장했다. 초기에 팩트체커는 아마추어 언론인의 자료, 특히 독자나 제3자 전문가가 보낸 자료를 검증했다. 이들은 통계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매우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팩트체커는 일반 언론인들의 게재물도 확인한다. 대형 언론사는 팩트체크 부서를 별도로 운영한다.

언론 편집의 일환인 팩트체크 부서 외에도 개별 프로젝트 형식의 특별 팩트체크 방안들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성장 중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작업 중인 전문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성공 프로젝트들이 있다.

1. ‘Verified’(https://provereno.media/)는 러시아 비영리 교육언론이다. 크리에이터들이 이 사이트에 허위사실(fake facts)을 게재하고, 사용자들은 검토용 기사를 보낼 수 있다.
2. ‘War on fakes’(t.me/warfakes)는 시간당 몇차례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관련 기술을 제시한다.

현재 전문가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몇가지 믿을 만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첫째, 여러 독립적인 출처를 이용하여 정보의 원 출처를 확인한다. 둘째, 사건에 대한 반대편 견해를 고려한다. 셋째, 가짜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운다. 연구자에게 있어 가짜는 의도적인 위조나 속임수만이 아니라 부주의, 오자, 기술적 실수도 포함한다.

팩토이드에 맞서 싸우는 언론인은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를 주의 깊게 사용하고 있으며 팩트가 선정주의보다 더 중요함을 따로 언급한다.

현대 언론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그 범위를 크게 확장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뉴스가 여론 형성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허위사실과의 싸움과 팩트체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재된 정보의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은 제대로 수행된 팩트체크뿐만 아니라 게재 성공 및 대중의 평판, 신뢰에 달려 있다.

발제자



**카다르 아울 이스마일**

소말리아기자연맹 (NUSOJ)  
정보인권국장  
소말리아

카다르 아울 이스마일은 소말리아의 선임기자이다. 그는 11년 이상의 미디어 경험이 있다. 또한 저널리즘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경력도 있다. 그는 현재 저널리즘 옹호자의 인권과 원칙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소말리아기자연맹(NUSOJ)의 정보 및 인권 국장이다.

**소셜미디어가 뉴스보도에 미치는 영향**

팩트체크와 언론 자율규제의 과제연론에 대한 다면적인 개입이 증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사실과 허구의 구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디지털 뉴스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언론인과 언론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디지털 뉴스미디어가 뉴스 소스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제는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신뢰성 여부다.

디지털 뉴스미디어에는 온라인 미디어, 블로그, 디지털 포토 저널리즘, 시민 언론, 소셜미디어 등이 포함된다. 소셜미디어는 소말리아를 비롯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셜미디어의 시민 언론이 된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

----- 카다르 아울 이스마일 |

혹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나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증가하고 허위정보가 유포되면서 사람들이 혼란이 빠졌다. 누구나 원하는 내용을 퍼뜨릴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기술이기에 초래된 문제다.

일반인들은 누가 기자고 누가 아닌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소셜미디어에는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언론인인 척 행동하며 뉴스를 유포하지만, 언론 윤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언론의 규칙과 윤리를 위반하는 개인들 때문이다.

위기, 비상사태, 선거 및 기타 사회갈등이 발생할 때, 언론인은 선봉에서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언론인과 언론미디어의 자율규제가 가장 필요한 때다. 가짜뉴스가 널리 확산되면서 미디어 전문가가 부정확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보유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

자율규제는 검열이 아니라 윤리, 정확성, 인권 등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언론의 질은 물론 미디어 파워까지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결론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과제는 전 세계 미디어 환경에 존재하지만, 언론인과 언론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미디어의 신뢰성과 청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발제자



제이 알렉스 타퀴노

미국기자협회  
전 회장  
미국

제이 알렉스 타퀴노는 전 미국기자협회 전 회장이자 베테랑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정치와 금융을 다루며 포린 폴리시,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폴리τικο 등에 발표 되었다. 그는 Forbes.com의 첫 번째 투자 편집자이자 The Real Deal의 지역 특별 섹션 편집자로 근무했다. 그는 분할된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에 대한 보도로 독일 마살 기금 저널리즘 펠로우십을 받았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측이다 무지는 힘이다”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소설 <1984>에 묘사된 전체주의 국가의 선전 슬로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1949년도에 출판된 이 소설이 오늘의 토론을 준비할 때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리는 일부 국가가 구축하고 있는 ‘허위정보를 금지하기 위해 설계된 효과적인 시스템’ 관련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한발짝 물러나 ‘허위정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는 현대 용어로 그다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허위정보로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선전이라고 불렸다.

언론의 허위정보를 금지하는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필자는 “없다”라고

제이 알렉스 타퀴노

한마디로 대답할 것이다.

언론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강력한 정치기구에 대해 비판적 균형추가 되는 것이다. 또 모든 진술에 대해 의심을 품어야 한다.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주최측인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미국기자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의 자발적인 윤리강령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진실을 찾아 보도하라. 피해를 최소화하라. 독립적으로 행동하라. 책임감을 갖고 정직하라 등이다. 진실을 찾는 또 하나의 방식인 팩트체크는 언제나 윤리적 보도의 핵심이었으며 어떠한 시대나 전파방식도 그것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팩트체크가 공개토론의 양측에 동일한 비중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비유로 일기예보가 자주 사용된다. 하나는 밖에 비가 온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날씨가 맑다고 한다면 기상캐스터의 역할은 양쪽 모두 일리 있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방송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비가 오는지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다.

정치부기자도 마찬가지다. 밖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왔음을 알았을 때, 그들의 임무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화창하다”며 선전을 사실인 양 보도해선 안된다.

불행히도, 일부 정부는 대중의 반대의견을 억압하고 정부가 원하는 버전을 주입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 자의대로 못된 짓을 한다. 이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는 검열이다.

이 단어가 오늘 필자가 한 말 중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Dmitry Muratov가 최근 자신의 신문 <Novaya Gazeta>를 폐간하게 된 것은 언론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사실에 존경받는 언론인들이 동의하기를 바란다.

안타깝게도, 전장 보도라는 형태의 진실 추구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제이 알렉스 타퀴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하던 기자, 사진가, 다큐멘터리 제작자 등 6명 이상의 언론인이 사망했다. 12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많다.

잠시 멈추고 사망한 우리의 동료, 우크라이나인 및 외국 특파원을 애도하자. 슬프게도, 이 목록은 날마다 더 길어지고 있으므로 누군가를 빼먹었다면 용서를 구한다.

그들의 송고한 죽음을 결코 잊지 말자.

발제자



도 호아미 응우옌

베트남기자협회  
국제부 부국장  
베트남

도 호아미 응우옌은 10년 이상의 국제 보도 경험을 가진 기자이다. 저널리즘 및 여론 뉴스의 저널리스트로서 쓰기 및 멀티태스킹 업무를 맡고있다. 그는 베트남기자협회 해외교류 담당 및 인력관리 역할을 해왔다.

가짜뉴스와 베트남 언론의 변화경로

오늘날 뉴스 소비자의 대다수는 사회에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큰 문제로 보고 있다.

팩트체크는 뉴스를 유포하기 전에 필요한 시급한 요구사항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독자, 언론인 또는 당국?

영양을 잡기 위한 치타의 고속 추격전

2021년 베트남의 코로나19 상황 전개를 지켜봤다면 아마도 호치민시의 사례를 기억할 것이다. 시는 전형적인 코로나19 4차 유행이 2021년 5월부터 4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서 언급되어야 할 것은 호치민시는 18세 이상 인구의 약 80%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도 호아미 응우옌

예방접종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 정부의 노력에도 코로나19 백신이 심부전과 여성의 생식기능에 문제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거의 전역에서 퍼져나갔다.

소수의 열렬한 백신 거부자들은 반대와 함께 뿔뿔 뭉쳤다. 그들은 왜곡된 음성해설이 담긴 여러 출처의 링크와 백신이 전혀 효과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콜라주 등을 제시했다.

필자는 그들에게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았으며 서구 및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평판 좋은 신문의 링크를 보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이런 일을 접하고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백신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판 좋은 신문은 소셜 네트워크 상의 가짜뉴스 정정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려고 한다.

이 난국에는 명확한 형태가 있다. 가짜뉴스를 발견하고 퇴치하려는 언론의 놀라운 노력, 그리고 과학적, 실험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령이를 먹으면 코로나19가 치료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와의 싸움은 단순히 생각으로 압축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팀과 함께 기술적으로 진실을 검증하여 "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퇴치 위한 노력이다. 특히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긴 여정이다.

치타와 영양의 끝없는 추격전처럼 둘은 서로에게 가차 없는 적이다. 치타는 먹이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언제쯤 완전한 승리를 거둘지 알 수 없지만 언론인들은 계속 노력해야 하는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의 팩트체크 정보와 언론의 역할**

소셜 미디어 혁명은 언론이 정보를 이용하고 출처에 액세스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계속해서 변화시킬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기사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언론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

도 호아미 응우옌

베트남의 국제부 기자들은 거의 다 국제통신사에 연결되는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거리, 언어, 성별, 국가의 제약없이 365일 24시간 연결 및 공유가 가능한 뛰어난 기능으로 소셜 네트워크는 강력한 영향력과 인기를 누리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거대한 광산이라면 언론인과 통신사는 광석을 금으로 가공하는 공장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팩트체크된 정보는 언론의 장점이다. 타블로이드 언론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충격적인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한편으론 언론이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또한 언론인들은 여론을 파악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의 안정에 정보의 방향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자율규제기관의 운영**

여러 뛰어난 기능으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최근 인간관계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언론 생태계는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언론은 뉴스 보도의 잇점도 많이 상실하고 있다. 많은 신문들이 발행부수를 줄였다. 광고 수익도 감소했다. 많은 언론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입도 줄었다.

우리는 언론 전문가와 시민 모두를 포함한 언론자율규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언론인들은 자신의 직업적 기준을 스스로 돌본다.

독점적이고 독창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대중들은 언론에 주목하지 않는다. 방송, 텔레비전, 온라인 신문은 또한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플랫폼의 뉴스, 구글 팟캐스트, 아마존 뮤직, 사운드클라우드와 같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어 독자, 특히 청소년을 유치하고 있다. 페이스북 팬페이지, 영상이 많은 틱톡,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도 강화했다.

정치, 경제 콘텐츠가 보다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최근 앞서가는 언론은 대중 지향에서 벗어나 대중과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 도 호아미 응우옌

주장한다.

사실상 베트남 언론들이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고품질 언론상품을 많이 갖춘 모든 유형의 매체가 언론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고 제품에 지능(5)을 발현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대중의 양질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별화시키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아울러 다른 조직 및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회활동을 하는 언론인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소셜 네트워크 참여자의 합법성과 윤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언론인들은 비판적 사고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기자과 편집자는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에 기여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 합법성, 저작권을 다루는 방법뿐만 아니라 허위, 잘못된 정보, 스팸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력도 스스로 습득해야 한다.

2022 세계기자대회

#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4(Sun) - 26(Tue) April 2022

## Participants List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1	Bangladesh	Mahbub Morshed	The Daily Star	Joint News Editor
2	Dominican Republic	Luis Beiro	Newspaper Listín Diario	Editor
3	Germany	Tobias Kaiser	Die WELT	EU Correspondent
4	Colombia	Angel Galindo	Thepharmaletter	Latin American Correspondent
5	Nepal	Keshab Prasad Poudel	New Spotlight	Editor
6	Bangladesh	Md Tawfique Ali	The Daily Star	Former Senior Reporter
7	Romania	Tinica-Octavia Galescu	Romanian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Senior Musical Editor/ Producer
8	Kyrgyzstan	Nurzhan Kasmalieva	Kabar News Agency	Chief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Translations Department
9	Somalia	Khadar Awl Ismail	National Union of Somali Journalists (NUSOJ)	Secretary of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10	Cambodia	Rethea Pann	The Post Media	Reporter
11	Paraguay	Benjamin Fernandez	Radio Libre	Director
12	India	Ranjit Kumar	Ravivar	Strategic Affairs Analyst
13	Nepal	Arun Ranjit	Foreign Affairs News	Editor in Chief

##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14	Nepal	Gokarna Awasthi	Federation of Nepal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Deputy Director General
15	India	Neha Banka		Journalist
16	Albania	Elira Canga	OSCE	Media Project Manager
17	Italy	Antonio Moscatello	Askanews	Journalist
18	Ghana	Malik Sullemana	New Times Corporation	Senior Journalist
19	Poland	Marek Traczyk	Polish Media Association	Chairman
20	United States of America	Lynn Walsh	Trusting News	Assistant Director
21	Papua New Guinea	Gorethy Kenneth	South Pacific Post	Political Editor
22	Georgia	Avtandil Otinashvili	News Day Georgia, News Agency	Director
23	Bulgaria	Pavleta Davidova	DUMA Daily	News editor
24	Honduras	Rosa Pineda	Newspaper The Tribuna	Journalist
25	Laos	Sengthong Phasavath	Lao News Agency (KPL)	Editor in Chief for News in English Division
26	Cambodia	Chanritheara Torn	Thmey Thmey Media	Journalist

##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27	Ghana	Jefferey De-Graft Johnson	The Ghanaian Publisher Newspaper	Senior reporter
28	Bangladesh	Ahmed Jamil Ibrahim	Asian Television	News and Current Affairs Advisor
29	Portugal	Leonidio Ferreira	Diario de Noticias	Deputy Editor in Chief
30	Colombia	Margaret Ojalvo	Al Dia Noticias / SIR Radio	Editor and Senior Journalist
31	China	Qimin Wu	Global Times	Editor in Chief
32	Kyrgyzstan	Kuban Taabaldiev	Kabar News Agency	Director General
33	Denmark	Flemming Ytzen	Politiken	Editor
34	Cyprus	Petros Soutzis	Press Agency	Editor in Chief / Director
35	Nepal	Niraj Ranjitkar	Arthik Sanjal	Editor in Chief
36	Ireland	Frank McNally	The Irish Times	Columnist
37	Panama	Alma Solís	Snip Noticias	Director / CEO
38	Yemen	Mohammed Abdullah Almuhaimeid	Peace Initiative	Vice President
39	India	Sabina Inderjit	Indian Journalists Union/ IFJ	Secretary General/ Vice President

##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40	Kazakhstan	Kanat Auyesbay	LLP (Media Holding)	Deputy Director
41	Kazakhstan	Bayan Ramazanova	Union of Journalists	Executive secretary
42	Pakistan	Rahul Aijaz	Film N' Chips Media Productions	Writer·Filmmaker·Journalist
43	Pakistan	Nasir Aijaz	Sindh Courier	Editor in Chief
44	Sri Lanka	Leo Nirosha Darshan Sathasivam	Express Newspapers Ceylon Limited	News Manager
45	Egypt	Ashraf Eldaly	The Silk Road Literature Series	Editor in Chief
46	Vietnam	Lan Phong (Lan Cu Thi)	Dantri Online Newspaper	Editor
47	Iran	Alireza Bahrami	ISNA News Agency	Editor in Chief
48	Iran	Pooneh Nedai	Shokaran Magazine	Editor in Chief
49	India	Neelima Mathur	Formedia	Trustee / Trainer
50	India	Gunjeet Sra	Subculture Media	Editor
51	Bahrain	Habib Toumi	Bahrain News Agency	Media Advisor
52	Singapore	Ivan Lim (Sin Chin)	Environment Communicators of Singapore	Editor

##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53	Nepal	Bishnu Gautam	Rising Nepal	Editor in Chief
54	Philippines	Rosalin Garganera	Asia Journalist Association	Correspondents
55	Cambodia	Sophal Chhay	Cambodia News	Advisor and Columnist
56	Germany	Hassan Humeida	GEOMAR/ University of Kiel and University of Flensburg	Doctor
57	Malaysia	Norila Mohd. Daud	Malaysia World News	Editor in Chief
58	France	Bilal Bassal	Asia Journalist Association	Journalist & Art Critic
59	Uzbekistan	Dilmurod Djumabaev	Asia Journalist Association	Correspondent
60	Nepal	Bishnu Nisthuri	Asia Journalist Association (Nepal)	Editor in Chief
61	United States of America	J. Alex Tarquinio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Past National President
62	Vietnam	Do Hoa Mi Nguyen	Vietnam Journalists Association	Deputy Head of International Desk
63	Indonesia	Ahmed Kurnia Soeriawidjaja	Indonesia Journalist Association	Head of Foreign Affairs
64	Russia	Timur Shafir	Russian Union of Journalists	Executive Secretary
65	Mongolia	Chuluunbaatar Dolgor	Asia Journalist Association (Mongolia)	President

※The list is based on the order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참가자리스트는 등록 순서에 따라 기재되었습니다.



WJC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022 세계기자대회